朝鮮日報
夕刊 八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酷熱과惡疫으로 東阿遠征軍苦惱

赤痢、腸疾扶斯等惡疫猖獗

五千名은이미送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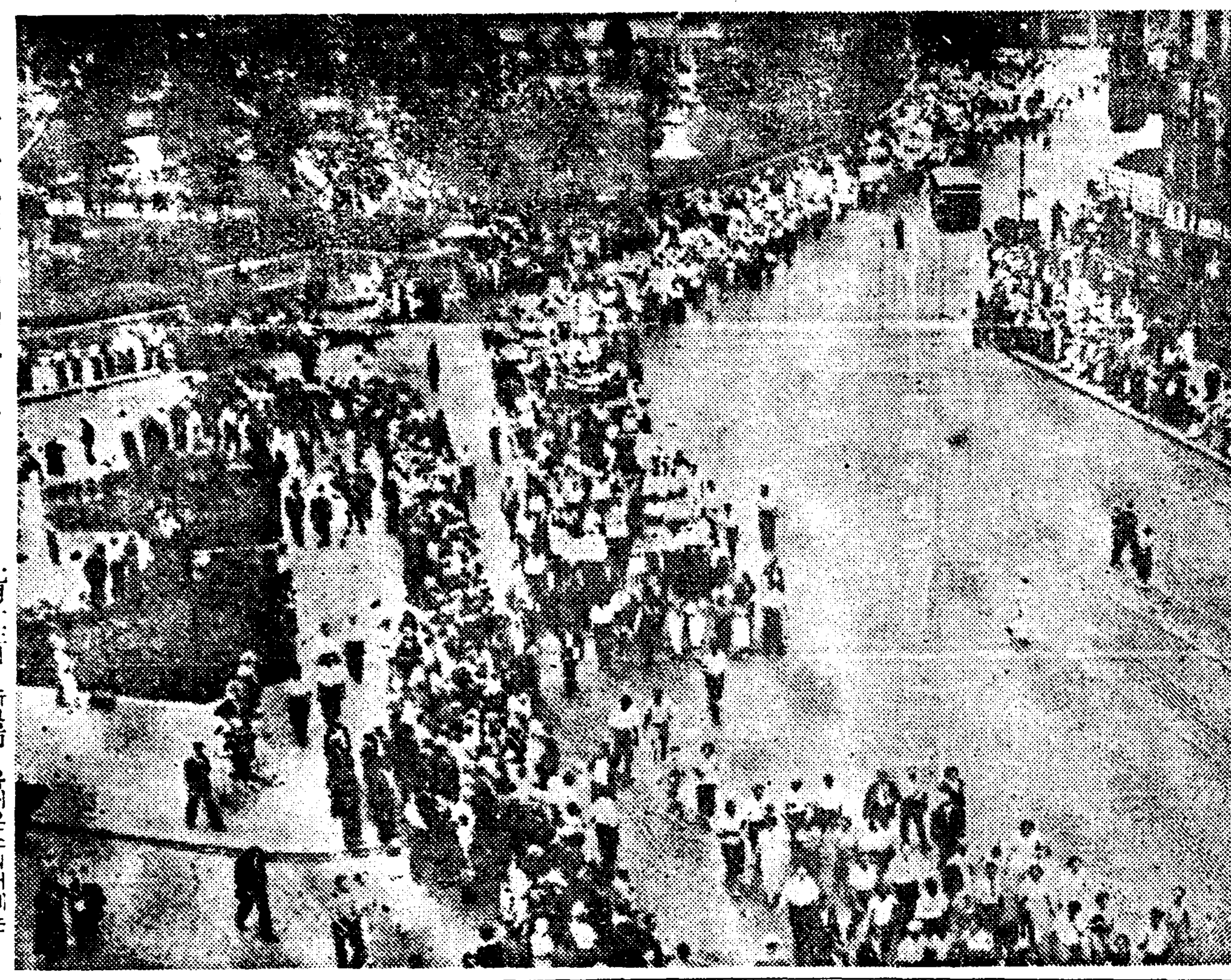
【포-트싸이드七日發聯合】東阿에出征한伊太利軍은거의大部分이에리트리아의맛사와港及伊領소말릴런드의모가딋쇼港에駐屯하야待機中인데모다赤道에가깝고特히맛사와는世界의最酷熱地의一이기때문에마라리아、赤痢、腸疾扶斯等惡疫이猖獗을極하야이미患者五千餘名은本國에送還되엇다

무首相健在乎

뭇솔리니氏

伊太利政府續續 軍隊並武器輸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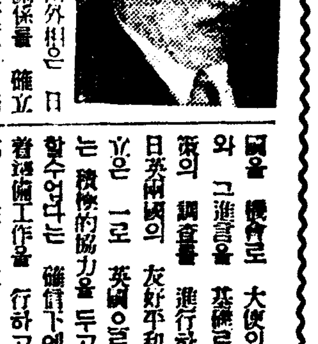
【포-트싸이드七日發聯合】伊에兩國의關係緊迫에伴하야伊太利政府는續續軍隊와武器를東阿로輸送하고잇는데南阿政府當局의調査에依하면過去六個月間동안에東阿植民地에赴한伊軍의總數는二十四萬、過去三個月間에伊國政府가運河會社에支拂한通過料는無慮一千三百五十萬릴라에達하야伊太利政府는續續外國船을빌려가지고運送船으로만들어國軍輸送에熱中하고잇는데英米兩國船舶其他의會社에서는伊國政府의財政狀態에벌서부터念慮를가지고石油木材等의賣却에應하는데에도一切現金拂을要求하고잇다고傳한다



뉴욕失業勞働者示威!

七月十三日뉴욕市유니온스퀘어에는三百二個의勞働團體로부터選拔된一萬五千의黑白男女失業勞働者가모혀一大示威演說會를한後市廳에行進하야十萬失業者가「싸인」한救濟要求의陳情書를市長에게提出하엿다는데寫眞은失業大衆의行進光景

日英親善確立 外相重大決意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日英兩國의恒久親善關係를確立하기爲하야松平駐英大使의歸國을機會로大使의現地報告와그進言을基礎로하야具體策의調査를進行하고잇는데日英兩國의友好平和關係의確立은一로英國으로부터示하는積極的協力을두고는달리求할수업다는確信下에目下着着準備工作을行하고잇서서非常히注目되고잇다

一、英國은東亞의唯一한安定勢力인日本의地位에對하야中國에잇는英國의旣存權益은一로日本과의協定에依하야이것을擁護維持할것이라는確信을가지게된것은多다고할것이다 그러나東亞에잇서서의此種英國의消極的協力의事實만으로서다가리世界平和確立을期待할수는업다

一、英國이現在東亞에잇서서의日本의責任的地位를認識하고日英協調에依하야英國이東亞에가진重大諸權益을保持하려고하는以上日本이國家의『프레스티지』를賭하야그實現을希求하는軍縮協定締結을爲하야먼저英國은積極的協力을圖할것이다

一、그뿐아니라英國은오타와會議、今年五月의大英帝國會議의結果그本國植民地의經濟블락을強化하야厖大한資源과無盡藏한消費市場을世界에對하야閉鎖하야世界經濟通商에拍車를加하게되여全世界陸上貿易을壟斷하는英國의此種工作은貧弱한資源과過剩人口의增加에苦惱하고잇는日本에對해서는거의致命的進退阻止로英國이참으로日英親善確立을希望하는限英國은마땅히그自國의블락經濟의障壁을撤廢하고日英共榮을爲하야먼저積極的으로協力할것이다

그리고歸國命令을바든松山駐英商務參事官도近近歸國하게되므로日英會商、日印會商을옹호인英國그後의經濟狀況과오타와會議에힘이된英國의排外資本의實體에對하야愼重協議를逐하나옴今秋를期하야드듸어海軍軍縮本會議와併行하야對英一般懸案解決特히日英通商貿易問題調整을爲하야英國의積極的協力을要求하려고重大決意를굿게하게되엇다(寫眞은廣田外相)

明年度要求豫算 二十八億圓突破

【東京電話聯合】明年度各省豫算槪算書는文部省을除하고七日午後까지全部大藏省主計局에提出되엿슴으로大藏當局은文部省豫算의提出을待하야數日中에津島大藏次官을爲始하야賀屋主計局長、靑木理財局長、石渡主稅局長其他各局課長은葉山一色의高橋藏相別邸에參集하야高橋藏相을中心으로葉山會議를開催하고各省豫算槪算書에基하야明年度豫算查定의根本方針을決定하기로되엿는데目下大藏當局에提出된豫算總額은標準豫算總額十六億七千九百三十萬圓과新規要求와를合하면이미二十四億圓餘에達하는바이에文部省의新規要求豫算總額約三千萬圓과大藏省所管의各省共通費인爲替差損金、國債費의增額等一億圓餘、陸軍의滿洲事件費約二億圓、其他各省에留保되여잇는것을合하면明年度의要求總額은二十八億圓內外에達하리라고大藏當局은豫想하고잇다 그리고이것을今年度의豫算編成當時의要求總額二十九億圓에比較하면約一億圓餘의減額으로이것은災害豫算의減額과陸軍의機械化擴充費、資材整備費가相當히減額되엿고더욱時局匡救事業이全部中止되기때문인데主要한原因은十一年度豫算編成方針에包含된各省協力自制가豫算槪算에多少라도實現되것이라고觀測되는바大藏當局에서는今後各省豫算查定에當하여는各省에一層努力을要請하야豫算編成의實을期하기로되엿다

非公式懇談으로 十六日三國會談?

【巴里七日發聯合】라발首相은七日午後英國大使及伊太利大使와會見하고英佛伊三國會商에對하야豫備協議를遂하엿다右會見의結果大體十六日에開會키로決定하고兩國大使는各其本國政府에請訓한다음正式으로日程을決定하기로되엇다 會商에는이든無任所相、라발首相과알로이지男이各各英佛伊三國政府를代表하야出席하야一九〇六年十二月의條約에基하야伊에兩國間의紛爭에對하야根本的處理를圖할順序인데正式會議는開會하지안코主로三國代表의非公式懇談으로妥協案의達成에努力할터이다

朝鮮人警察官도 宿舍手當支給

朝鮮人官吏優待의一端으로警務局은職務上居住制限을受하게되는朝鮮人警察官에게宿舍手當을支給하기爲하야硏究中이든바最近具體案을엇게되어明年度에所要經費十七萬圓을要求하기로決定하엿다 이制度가實現되면七千의鮮人警察官은그激務가가못緩和되리라고期待되다

和協解決斷念코 『에』國王作戰計畫

開戰時에伊軍을奧地로誘導한後進擊

動員兵數는六十萬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伊에紛爭의和協解決을斷念하고벌서부터開戰을豫想하고作戰을計策하고잇는데開戰과同時에伊太利軍은北部에리트리아及南方『아도아』로부터侵入하리라는想定에基하야伊太利軍의來襲을如何히하야阻止할가에對하야苦心中인데大體軍首腦部는伊軍이來襲한境遇에反擊하면서伊軍을奧地로誘導한後에持久戰에依하야西北方으로부터敵軍을攻擊할作戰을認定하엿다 이見地에서皇帝는軍隊의北部集中을禁止하고잇다 伊軍이南部소말릴런드河川을遡하야侵入할境遇에는에디오피아軍은河水를限止하야斷水戰術로侵入軍을渴死케할作戰을取할模樣인데 그리되면南部砂漠에서斷水를當한伊軍은全혀進退의自由를失할것으로보인다 에디오피아軍의實勢力과그分布는軍의機密에屬하고兵員의武裝狀態도一切推知할수업스나消息通의確報에依하면現在에디오피아軍의實勢力은如左하다

▲國軍編成

一、七個軍團中六個軍團은前線에出動 一個軍團은豫備軍으로殘留

一、各軍團은三十個聯隊로되어一聯隊는三千人의兵員을擁함 따라서現在의動員兵力總數六十三萬人이다

一、北軍司令官 라스·씨움·망가스아將軍(요하네皇帝의孫)

一、南軍司令官라스·데스담프로우將軍(하일레·셀라시에皇帝의女婿)

一、東軍司令官、皇儲아스파우센殿下

一、西軍司令官、라스·카르將軍

一、東部中央軍司令官、라시브將軍(現아디스아베바知事)

一、西部中央軍司令官、라스、카초아、달게將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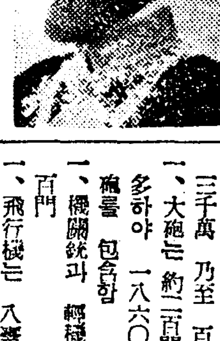
▲武裝狀況

一、兵員數六十餘萬中으로二十一萬은政府로부터武器彈藥의供給을受하고잇다 小銃數는三千萬乃至百萬挺

一、大砲는約二百門、樣式은雜多하야一八六〇年의舊式野砲를包含함

一、機關銃과輕機關銃은各四百門

一、飛行機는八臺中二臺는使用不能


(寫眞은에國王)

十萬大軍參加 『에』國大觀兵式

將士들의即時國境進擊氣勢로一時騷動

式後首腦部戰略密議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國境線上의風雲急迫을압두고에디오피아政府는七日北部보로쿤라르大平野에十萬의大軍을召集하고大閱兵式을擧行하엿는데閱兵式은當年十歲의皇儲아스파우센殿下가皇儲五名을代表하야出陣하야陸相물게타將軍과猛果敢한國軍을閱兵하엿다 閱兵式場은一八九六年메네릭、소말릴런드間의戰鬪에서一千의伊太利軍을鏖殺한아도아南方겨우百六十키로되는地點에잇서아스파우센皇儲는閱에오래동안歡呼가차엿던將士의戰意는一時에爆發하야『에발그메』(打倒)를絶叫하며바로에디오피아國境에向하야進擊할氣勢를示하야各隊指揮官이百方으로慰撫하야간신히阻止하는形便이엇다 閱兵式終了後물게타將軍은皇儲와數時間동안密議하고開戰이된때의戰略에對하야重要協議를遂하엿다

伊紙英國攻擊에 英政府嚴重抗議

【倫敦七日發聯合】왈왈事件이發生한以來伊太利各紙는筆鋒을가리하야英國의行動을非難하고잇는데伊太利言論界의暴狀에오래동안隱忍하고잇던英國政府도드듸어重大決意를굿게하야去七月二十六日特別理事會開催를압두고倫敦駐箚伊太利大使에게嚴重抗議를提出하엿다 그라디英國政府는伊太利各紙의論調가過激에흘러伊英兩國間의親善友好關係를阻害할憂慮가잇다는것을指摘하야伊太利政府에對하야嚴重取締를要請하엿다고解釋되다

八面鋒

伊、에和協案은兩國元首의同意까지어더지만、內容으론戰備에만汲汲할뿐。

◇

雨期가지나天高馬肥하면大軍을몰아에디오피아城中을闖入할計畫이라하거니와、

◇

아지못게라、伊太利에그만한財政、그만한士氣、그만한隣國의默認이잇던가。

◇

窮僻에謀한파시즘의血路를에디오피아遠征에發見한무首相

◇

나치스의難局한活路를對蘇開戰에發見한히總統

◇

이두사람은아울러早晚間世界를戰禍에모라될굿。

商震氏來津

【電通天津七日發】河北省主席商震氏는灤州事件에關하야七日夜或은八日朝保定으로부터天津에急行해와서梅津司令官에게深甚한遺憾의意를表하기로되엇다

灤州事件第二次抗議의要求事項

天津軍首腦部考慮中

【電通北平七日發】灤州事件의善後措置에關하야日本側에서는白河에停戰區域內요義和團議定書關係地域內에서日本正規兵이射擊된것이므로이것이條約과停戰協定及北中協定에違反된다는等의諸點에對하야詳密한硏究를必要가잇고一方事件의事實調査와그背後關係等에關하야愼重한檢討를要하므로아직第二次抗議에伴하는要求事項等에對하야正式決定을보게되지아니하야目下天津軍首腦部에서熱心으로案을考究中인데右要求는

一、停戰區域擴張問題

一、停戰區域內保安警察權問題

一、北寧鐵道一部管理權參與問題

等이考慮되고잇다고信憑되며事件그自體의眞相判明을기다려王克敏氏에게提起하고드듸어第二段의北中肅正工作에着手하기로되엇다

拉致英人滿國側救出

【北平七日發聯合】去月二十八日察哈爾省內의匪賊에게拉致된英國人二名中一名은곳釋放되고남은존스氏는昨六日熱河省境에서滿洲國當局의손으로救出되어七日無事承德에到着하엿다

人事·集會

▲池田警務局長=全北出張中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

▲孫永穆氏(江原道知事)七日夜入京朝鮮호텔投宿

▲十竹十郎氏(平北知事)八日朝入京備前屋投宿

▲北村捍雄氏(警務局事務官)全北出張中八日夕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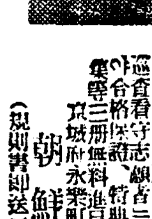
財政緊縮令反對코 佛汽船從業員罷業

政府、武裝兵으로警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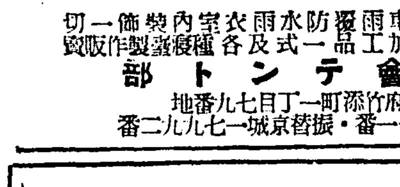
【電通아브르(佛國)七日發】佛國汽船창프렝號船員은政府의財政緊縮令에反對하고七日全員이下船하야市內示威行進을行하엿는데同夜深更에及하야라파이예트號及노르만듸號도창프렝號船員의罷業에合流하야推移는자못重大視되게되엇다 그리고이때문에七日午後二時出帆할豫定이든창프렝號는出帆不可能하게되어汽船會社는不得已八日로出發을延期하엿다 그러나現在의形勢로는八日出帆은커녕九日에도出帆할수잇슬는지豫測할수업는形便이다

【電通브레스트(佛國)七日發】當地의罷業電氣職工의騷擾는重大化하엿기때문에警備軍及憲兵隊는今朝到着하야合計一千名以上의武裝兵이市內의要所要所에駐屯하야森嚴한光景을呈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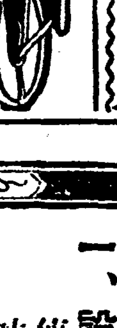
物理醫療師
生活線第一有望
最新最高物理醫學 責任養成
◉院長은我國綜合電醫의創始者로써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電醫에有名한巨頭이다
永久醫師同樣의資格을獲得하야衆人의尊敬과生活의安定을得할者는必히今期에入學하라 不遠總督府令發布其後에난自由開業은不許함 只今에本院의資格證書로서自由開業이되어永久安全하고有資格인養成所는本院以外에업다
◉來院하면一目明瞭(希望者난葉書로要則請求하라(會送))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朝鮮人巡查試驗問題集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三〇三〇番
(規則書即送)

金 銀 福 白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シイクフ)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園遊會用天幕

各種天幕日覆荷車雨覆防水布衣室內裝飾一切
各種帆布防水布加工品一式及各種寢臺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七一一番・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恩給
長期低利立替 如何한程度까지도便宜取扱 借換歡迎(乞試問)
京城府笠井町一五〇 朴商會


自轉車 材料 原價奉仕問屋
製造元より直接皆樣へ 信用(重視) 附商報進呈
特典
最高級新舊車日英保險付 實用優美 仕上吟味堅牢 中古車出物 太リヤカー
地方諸官廳納品 外國輸出
名實隨一のエスニム號製造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大通
直賣元祖 自轉車製作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七百圓以上金融
(絶對秘密嚴守)
電話賣買
京城電話仲買店
東一銀行下側
電話光化門二九七九番

本月七日부터開館
食館(營養의집)ボア・グラン
朝鮮에처음생긴冷房裝置 冷氣는秋江을스치는金風과가티至極히自然스러히곽차잇습니다 찌는듯한여름날을울니즈시는데는絶好의避暑處로서推薦합니다
一、設備의特徵은 傳統으로나려오는大和魂의象徵인바淸雅와滋味木香이새로운數寄屋、風坐席、輕快한카우타ー席(壽司、川魚、即席料理、天夫羅)近代的豪華를자랑하는大宴會室、眞善眞美의割烹品等
一、飮食物은 和食 洋食 粹의精粹 (星ケ岡茶寮以上의調味와名器皿)(純佛蘭西料理)(備長炭의구리루、網燒)
一、給仕는 산生鮮과가티潑剌하고淸楚한뽀ー이의親切한써비스
食事 家族同伴 宴會 에利用해주시옵소서
(貯銀新築場橫)旭ビルヂング內
食館 ボア・グラン
電話本局四六八四番

銀粒仁丹
食慾의增進
榮養의充實
仁丹만連用하시면여름惡疫도大安心!

로ー즈仁丹十錢包에添贈中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스팀設備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一四五二(醫局)
樂園洞一三五

電話增設廣告
讀者從來本東部에서電話四四番、一五五五番兩番을使用하여왓습니다만僉位의愛護하여주심으로業務는日益擴張됨니다 따라서電話二番을不足하야이번에二四四番을增設하엿사오니僉位께서는倍前愛護하여주심을바랍니다
平壤旭町
平安タクシー
電話(一四三 一五五五 四四四番)

浪花館
八月七日より待望に大封切
三五年銀幕の寵兒人氣王天才小役テンプルに妖姬ヘプバーンの大傑作名篇の競映
上映順
一、R、K、O超特作日本版
勝利の朝
監督ローエルシャーマン
主演カザリンヘプバーン
二、フオックス超特作日本版
ベビイお目見得
監督ハリーラックマン
主演シアアレーテンプル
「愛の鳴咽」「若草物語」と一作每に全映畫へ大波紋を投ずる慧星ヘプバーンが昨年度アカデミ賞を與へられ!快心作
颯爽!!映畫界の王座に君臨せるテンプルの微笑と其の可憐なる瞳!「久遠の誓」「可愛いマーカちゃん」と既成大スターを常習壓倒せる天才小役テンプルが今再び皆樣に贈る素晴らしき花束!!

優美館
八月九日부터特別納凉週間! 晝夜三回!
코럼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
로스·래다만氏監督作品!
豪勇毒婉 존·스
快男존·래이몬드 스산·후에스 共演
大都映畫社超大作現代劇
카추샤『復活』
監督 吉田俊夫 脚色 吉村操
主演 島田文郎 佐久間妙子
名金天狗立山嵐
阿部九州男 木下雙葉 主演

各府縣內鮮係警官이 總督府警官兼任

東京大阪만 四百餘名多數

渡航在留者取締强化

경무국에서는 일본내지의 중요부현경찰부 특고과(特高課)의 내선계(內鮮係) 관계의 경관을 경무국의 겸무제도로하야 재류조선인의 취체와 경무국과의 련락을 긴밀히하게 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재래에는 경시청(警視廳)에만 이십명경관자가 잇든것을 이번에는 대판(大阪)부경찰부에 경부세명을 겸임제도로 임명하는동시에 금후에도 산구(山口) 병고(兵庫) 복강(福岡) 경도(京都) 명고옥(名古屋)등 각현에 조선인이다수 재류하는지방에는 그곳경부를 총독부의경부 또는 경무국속을겸임케 할터이라는데 현재 재류조선인의 전문적취체기관으로 되어잇는 경시청내선과를 비롯하야 각부현의 특고과에는 내선계가 잇고 또각경찰서에는 고등계내선계경관이잇서 경시청관하에 총수이백여명 대판에는 이백이십명이나 그게원총수가 되는상태이다 그럼으로 내무성경보국(警保局)보안과의 내선계 전임사무관의총지휘하에 일본내지의 각부현경찰부 내선계는 재류칠십마조선인의 취체를 하는터인데 경무국에서는 겸임제도외에 경관을서로 전임(轉任)식히어 조선서경관 경험잇는자를 일본내지에가저다가 내선계 경관으로식히는등의 금후더욱 긴밀한련락을취하게하야 조선인의 도항자취체는물론 재류조선인의 사상취체와 기타의 고등경찰망을 더한층강화하게 되엇다한다

漢江新人道橋 明春에는竣工

永登浦까지電車複線工事도 明年中은延長豫定

서울의 새명물로 한강의일대위관인 신한강인도교의 가교공사는 작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총공비 이백오십만원을 가지고 총독부토목과에서 공사중이든바 이미 교각(橋脚)과 로량진(鷺梁津)측의안벽공사도 마치고 목하룡산(龍山)측의구교와의 접속지점공원의축조공사중으로 금년중에는 전부공사를 마치고 명년봄에는 전부 준공될터이라한다 따라서 현재의 인도교로부터 전차선로도 복선이 전통되야 영등포(永登浦)까지의 복선전차선로 공사는 경전(京電)에서 명년봄부터 시작하야 명년중에는 영등포역압 까지전차가 개통될터임으로 대경성의 남쪽현관은 면목을 일신하게될터이라한다

京都同胞保育園 基督敎側이占領

朝鮮人社會에問題

【京都】경도에 재류하는 오만동포의 피와눈물로 경성된 경도시 좌경구 전중현경정 구번지(京都市左京區田中玄京町九)에 잇는 경도 조선중앙보육원(京都朝鮮中央保育園)은 방금 하기방학중에잇든중 지난일일 오후오시경에 재경도 조선기독교전중전도소(在京都朝鮮基督敎田中傳道所)에 소속한교인 박수주(朴秀柱) 박포재(朴浦在) 양민애(梁敏愛) 리성은(李聖恩) 리병권(李幷權)등이 돌여친입하야 보육원의 잠근문을 떼고들어가서 보육원의 집물을 전부 들어내고 보육원의 간판까지 떼어버리는일방 기독교 전중전도소간판과 박수주의 살림을 전부들여놋코 보육원을 점령하고잇다 이와가튼 의외의 사변을당한 보육원리사회에서는 긴급리사회를 소집하야 그내용을 조사하는동시에 가택침입죄급 훼기죄로 고소를재기할모양이라는데 이사건에 대하야 경도재류동포 사회에서는 일대 중대문제화하엿다

始興覆面强盜 仁川潛入痕跡

【仁川】시흥사자암(獅子庵)에잠입한 복면강도가 인천으로 잠입하얏다는 소문이잇서 소관인천서에서는 지난륙일 오전한시부터 형사대를 출동시켜 시내일체를 검색한결과 범인의종적은알수업고 의외에 불량배와모히중독자 십오명만 체포하엿다는데 그중에는 시내도산정(桃山町)보각사(普覺寺)뒤에서 밀회하고잇든 두쌍의인물도 석기여잇다는데 그들은 시내에서유력자라고 자처하는인물이라한다

短刀로突刺亂鬪

시외 돈암리(敦岩里)삼백이십일번지에사는 동관국(董冠國)(二七)이라는 사람은 약십일전에 동리 사백오십팔번지 고선경(高善景)(三二)과 싸홈을하고 어더마진것을 분개하야 이를 복수하려고 칠일오후한시경에 전긔고선경을 그의집에서 끄려내어로상에서 일대격투를 한끄테 손칼을 가지고 선경의 두엇개를찔어 중상을입혀 일시 피투성이의 대소동을 이르키엇는데 피해자는 즉시 숭인동(崇仁洞)수송(壽松)병원에 입원치료중 이며 가해자인 동관국은 즉시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인치되엿다

四千餘名洞民의 共同井戶에投藥

龍山憲兵隊에서犯人을嚴探

市外梨泰院에怪事件

【京南】사천여명이나 살고잇는 크나큰 동리에 생명수가 되여잇는단벌의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 너흔봄서를끼친 괴사건이 생기엿다 시외한지면 리태원(漢芝面梨泰院)이라는동리는 인구사천삼백사십륙인이나 되는 한지면내에 제일큰동리인데 그네들 우물수효는 단지두개(면에서파준것)밧게 아니되여 우물가에서는 항상물싸홈질까지 하게되며 물한목을 편히어들여면오리나되는 서빙고(西氷庫)강이나 그러치안으면 남산넘어나 륙군관사를가호 기려오게되는 처지로 마치 사막지대(沙漠地帶)와도 가튼 물편을 갓게되여 항상 한지면 당국의 무성의를절절히 비난해오든중인데 칠일아츰리태원리압 륙군관사엽헤 잇는전동민이 퍼다먹는 우물에다가 엇던자의 소행인지 무슨 약을 풀어너어서 물빗이 조물가티 호리고 또한 독한악취가 떠오르고잇슴으로 물길러갓든 사람들은 깜작놀나서 이를 원동리에다가 공포를하는동시에 한편으로는 룡산헌병분대에다가 고발하야 당국은 그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潮風을맛는 '캠핑'의 凉味 ‖月尾島에서‖

在滿同胞歸化案에 警務當局은難色

滿洲國警察完備前은取締難堪이라고

國籍解決은今後도波瀾未免

만주국의 국적제도의 완비와조선에 국적법의 실시를 하는동시에 재만이백만 조선인을 전부 만주국인으로 귀화식히자는계획은 총독부외사과에서 대체의 근본방침을 결정하고 긔술적 세목결정에 여러가지의 연구를 거듭하고 잇는모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이전체적 귀화안에 대하야 경무국의향은 재외조선인의 취체와 보호상의 견지로적어도 만주국의 경찰기타 모든행경제도가 정돈 완비되기전에는 이것을 실행하는것은 반대라는 의향이라한다

재외조선인이 조선안의 치안관게에 미치는 모종행동을 할때에 만주국에 귀화하엿다하야 조선측에서 거거취조를 못한다든가 또는 재만조선인과 현만주국당국자와의 감정관계로보아 귀화후에 과연사회적 정치적 또경제적 동등권을 갓게되겟든가 하면 그것역시 실제에 잇서서는 매우미묘한 관게가 잇슴으로만주국의 재반행정과 치안이 완전히 정돈되기 전에는 몰으되 적어도 현재의 상황이나 또는 수년후를 예상할지라도 조선인을 이중국적을 버서나서 완전한귀화를 식힌다는것은 경무국으로서는 반대의 의향을 갓고잇서재만조선인중의 무적자문제 국적문제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착잡된 재만조선인 중대문제의 근본적해결책에대하야는 외사과의 여하한 의도와계획이 잇슴에불구하고 압흐로 만흔파란과 고절을 거듭하게되엿다

理想案에不過 實施에는困難

上內保安課長談

별항과가티 재만조선인의 만주국귀화계획에 대한 경무국의 중요한 의향을 대표하는 상내(上內)보안과장은 이문제를 다음과가티 보고하고잇다

『재만조선인의 만주국 귀화는 리상안이다 실제문제로는 재만조선인의 취체보호상 또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잇서 극히 미묘한관게가 만흠으로 만주국의 모든행정제도와 경찰이 완비한 후가아니면 이런 한 문제를 고려할바도못된다 이문제에는 말못할델리케트한 문제가만흠니다』

發明家金丙賢氏 名譽의金牌受領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高城郡高城面烽燧里)김병현(金丙賢)(?)씨는 금년이월이십팔일에 선곡긔(選穀機)라는것을발명하여 특허국(特許局)으로부터 신안특허를 바더이것을 널리세상에보급시켜오든바 이번에 동경제국발명공로자표창회(東京帝國發明功勞者表彰會)로부터 지난일일부로상장(賞狀)과함께 명예의『메달』을 바덧다한다

京電工夫로變裝 電線大量竊取

鍾路署一黨을逮捕

최근 시내각처에 전선(電線)도난이 빈빈하야 각경찰이극력그범인을 수탐하던중 칠일에드듸여 경전(京電)직공복을 입고범행한 일단과 전긔상회의 직공으로 잇는것을 긔회로범행한한때가 경찰에 체포되엿다 시외신설리(新設里)일백오십륙번지 리봉의(李奉儀)(三五)와 서린동(瑞麟洞)일백구십번지 박남선(朴南善)(三一)은 모다 명치정(明治町) 일정목사십칠번지산구(山口) 전긔상회 직공으로잇스면서 그상점의 전선과 전긔긔게를절취한것은물론이요 시내각대상점에 긔게 수선을 하려가서 전기부속품을 절취한것이 팔백여원어치나 되는데 금기야 칠일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엿다 시내 평동(平洞)팔번지 리영모(李永模)(三○)와 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오십팔번지 박상운(朴相雲)(二)과 서린동(瑞麟洞)이십구번지 정순조(鄭舜朝)(二)는 경성전기회사(京電)직공복으로 변장하여 가지고 금년사월부터 시외 은평면 홍제교(恩平面弘濟橋)부근에서 전선을 절취한것을 위시하야 각처에서전후 이십여회의 전선절도를 범행하엿는데 칠일오후에 시내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斃倒馬廿五頭 市內馬公의酷暑犧牲

작금시내의 더위는 점점맹위를발휘하야 가두에서 위선히생의제단에오르는것은 무언의 로역군인 마차마(馬車馬)들이다 그래서 금년들고시내에서 칠일까지 일사병으로 잡바진말이 이십오두인데 그중에서 아스팔트를벼개로하고 아주죽어버린것만 여섯마리라고한다 이에 경성부에서는 조선동물애호회를 동원하야 거리마다 구조원을 파견하야 일사병에 걸리는 마차마의 구호에 당하게하리라한다

不堪氷을京城에

【平壤】경성에 어름이 부족하여 천연으로 어름을 다량으로 가지고잇는 평양에 에쓰오 에쓰(SOS)신호를 발하여왓스므로 도보안과에서는 평양어름 영업자들과 협의하고 한돈(噸)에팔원십전식의 싼갑으로 매일삼십도식 경성천연빙회사에 수송키로회담을 발하고 칠일부터 수송을개시햇다한다

合勢土兵强襲 自衛團全滅

阿城縣達子縣慘變

【哈爾賓】당지모기관 입전에의하면 아성현성(阿城縣城)을 동북방으로 약삼십오만리(滿里)지점에 잇는 달자영(達子營)에는 방비집단부락(防匪集團部落)의건설공사옹호를 위하야 자위단오십명을 현성에서 파견하고잇섯는데 지난칠일밤 십일시경에는 구강(九江)길림(吉林)덕호(德好)의 합류토병 약삼백명이 강습하야 교전 삼시간에 자위단의 탄약부족으로 새벽두시경에는 단장(團長)이하 륙명은 전사되고 중상자 십오명을 내여 현장에는 선혈로 물들여노코 총기와 탄약을 강탈한후 민가에 방화까지하고서 인질로 십여명을사로잡어가지고 어데로인지 자최를 감추엇다한다 이급보를접한경무국에서는 경무지도관이하토벌대가 현장에 급행하얏스나 그들을 발견치못하고 목하 경비각긔관과 협력하야 그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三千餘圓詐欺 京城에潛入?

부산부 초량정(草梁町)해륙물산상 강위종(姜渭宗)(三一)은 수일전에 초량정 삼백사십일번지 북해도 물산판매 주식회사(北海道物産販賣株式會社)를 속여가지고 그소유인명태사천칠백칠십일원어치를 남조선 창고회사에 너허두고 그증표로써 그곳한 동은행에서 삼천칠백원을 꺼내가지고 경성방면으로 도망해왓다고한다 팔일아츰에 수배를바든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시내각서에 수배하고 그의소재를 찻는중이다

本社見學 황해도 김천군기업시찰단(金川郡機業視察團)일행이십팔명은 내무주임 리태근(李泰根)씨인솔로 칠일오전 본사신축사옥을 견학하얏다

人質十四名 追擊하야奪還

列車襲擊當時人質

【新京三日發聯合】삼일오전령시반 신경헌병대에도착한 전보에의하면 이일 오후 여덜시경만주군 기병제일단 박격포련(連)은 덕혜현(德惠縣)경찰대와 협력하야 구대현상하만(九臺縣上河灣)동북팔키로의 장포자(張泡子)부근삼가와붕적구(三家窩棚滴溝)선에서 수령 삼장호(三長好)의인솔한 약백명의 렬차습격토병을 추격교회하야 교전한결과 경도선토문령(土門嶺)의마안구(馬鞍溝)에서 지난이십구일 붓들려간자기인질십사명을 탈환하엿다

▲日本內地人 吉林憲兵訓練所長 戶芳雄 ▲滿洲國協和會事務所事務長 高付榮一郞 ▲吉林專賣所 本村龍雄 ▲新京吉野町二丁目二四의一 宮崎才藏 ●朝鮮人 ▲住所不明 馬東繁 ▲吉林大同세멘트會社員 孫舍生 ▲住所不明 金永一 ●滿洲國人 九臺縣 劉貴茂 外六名

運動競技

對日本選拔庭球 西朝鮮軍惜敗

兼二浦에서擧行

【兼二浦】全日本選拔對西朝鮮軍軟式庭球對抗戰은 六日午後四時부터 兼二浦日鐵코-트에서 열린바 西朝鮮軍의 善戰도 効果업서 다음의 戰績으로 西朝鮮軍이 慘敗하엿다 閉戰午後七時

【全日本】 第一라운드 【西朝鮮】

安井 山名 4—3 吉武 金順平
伊藤 嶺峨 4—3 洪承杰 李鍾淳
松本 土屋 3—4 鄭元錫 韓成春
山邊 奧津 0—4 金禁植 李鍾淳
石川 川端 4—1 洪田 小山
藤原 津谷 4—3 洪承杰 若泉

第二라운드

安井 山名 1—4 鄭元錫 韓成春

第三라운드

伊藤 嶺峨 1—4 金禁植 李鍾淳
石川 川端 4—0 鄭元錫 韓成春
藤原 津谷 4—2 金禁植 李鍾淳

都市對抗野球

京城軍憤敗 對東京戰에

【東京電話】都市對抗野球第五日 京城對東京의準準決勝戰은 八日午後零時 五十六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池田(球)三谷 蘇田(壘)三氏審判、東京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 6對5로 東京이 勝捷하야 準決勝戰에 드러갓다

【東京俱】 上野(中) 梶原(遊) 宮武(投) 永井(一) 片田(右) 井澤(左) 橫田(二) 角田(三) 左藤(捕)

【全京城】 崎山(中) 谷中(二) 敏李(左) 本松(右) 木鈴(三) 原島(一) 田保(遊) 小笠(捕) 關吉(投) 本橋(投)

宣川全朝鮮庭球經過

【宣川】宣川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回全朝鮮庭球大會는 八月七日午前十時부터 當地明信學校코-트에서 七個團體參加로開催한바 午後六時에 終了하엿는데 最終決勝戰에 宣川新安商科팀과 宣友팀이 相對되여 兩軍의熱戰끄테 新安商科팀이 優勝하엿다는바 이날戰績은 다음과가트다

【新安商科】 【宣友팀】

○ 許杰 洪勝 4—2 金春基 金福善 ×
○ 秋山 韓一 4—1 姜敏行 崔祥益 ×

第二라운드

× 沐昌 洪日 1—4 金啓善 文春三 ○

第三라운드

× 許杰 洪勝 2—4 金啓善 文春三 ○
○ 秋山 韓一 4—1 金啓善 文春三 ×

横商8A 平鐵2

【平壤】横濱高商對平鐵對抗野球戰은 七日午後四時부터 平鐵球場에서 吉田(球)萬上 木原(壘)三氏審判 平鐵先攻으로 開戰한바 結局 八A對二로 横商大勝하고 同六時閉戰하엿다

横商6A 平實5

【平壤】横濱高商對 平壤實業對抗野球戰은 六日午後四時四十分부터 平壤公設球場에서 平實先攻으로 開戰하여 白熱戰을演出한後 六A對五로 平實惜敗하엿다

西朝鮮籠球 三和軍이優勝

【沙里院】沙里院體育會主催의第四回 西朝鮮籠球大會는 豫期대로 지난七日午前十時에 沙里院德成普通學校코-트에서 金德振、金冑山兩氏의審判으로 開戰하엿는데 參加팀은 平壤、竹峴、兼二浦、三和、海州體育、沙里院農學校、沙里院體育A·B、合六팀으로 炎熱을무릅쓰고 猛烈히接戰을 繼續한結果 最後의決勝戰은 三和三十一、竹峴二十三으로 三和軍이勝捷하엿다

早大劍道部來征

早大劍道部에서는 九日東京發大連을거처 二十七日에 京城에來征하야 二十八日京城軍과 對抗試合을開催하리라한다

二十日에竣工될 平壤府營풀

競技大會도開催

【平壤】總工費一萬圓으로 工事中인 平壤府營풀은 二十日에 竣工豫定인데 日本水上聯盟標準測定을한後 公認풀에 登錄키로되엿다는바 開場式當日에는盛大한競技大會를開催키로되어 그計畫을 着着進行中이라한다

新商野球甲子園에

【新義州】來十三日부터 八日間阪神 甲子園球場에서 열리는大朝主催中等野球大會에 朝鮮代表로出場할新義州商業野球團一行十四名은 六日午後六時四十分新義州驛發戰地大阪으로 向하엿나 一行의宿泊處는 西宮市今津字高潮八八高潮旅館이라한다

妓生딸의虐待로 六十老母가投江

【馬山】지난오일 일은 아츰마산부원정(馬山府元町)해안에륙십여세된 녀자의 시체가 떠잇는것을 발견하고 원정파출소원이 급행하야 끄으려올녓는데 그는부내 만정(萬町)이백사번지 남금선(南錦仙)(二)이라는 기생의어머니로 금년륙십삼세의 로인으로 만치안흔 여생을 그와가티 자살로마친 리면사정은 그의딸 남금선은 오래전부터 기생노릇을 하야 다소의 금전을모하두고는 그의모친을 세상을저주하도록 학대를 한것이라는대 그날도 자살을 결심하고 심회를 참지못하야 병에다 술을 바더가지고 강변에서 한껏 부어먹은후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진것이라 한다

天氣豫報

曇

颱風은 南中國에잇서서 北西로 進行하고잇다 低氣壓은小笠原島의 北方과 樺太東편에잇나 高氣壓은 日本海로부터 滿洲、朝鮮及日本內地에 퍼저잇스나 그勢力은 弱하다 滿洲는晴、北朝鮮은曇、新義州附近에는 안개가끼것다 日本內地는 晴雲不定

昨日 最高 二九度八
氣溫 最低 二一度六
今日 正午 二十八度五

앞은곳에발느면낫는

神經痛…류-마지스 담절니는데……頭痛 咽喉痛……견비증 腰痛……運動競技로 인한 打撲……筋痛 疲勞回復에……

압픈곳·쑤시는곳·결니는곳·부은곳·예인곳·가려운곳의피부에 「사로메지-루」를조곰 발느시고 문질느시면 그럿케심하든고통이 곳낫게되는약입니다。 내복약 처럼 위장에고장을일으키거나 인이백이는법이업고 직접 환부에침투되야서 얼는 효험이 낫타나는것이니 퍽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습니다。

견비증

직무과로 혹은 신경통으로 억개 가슴 허리 관절에고통 또는 피곤하신때에 본제를발느시면 무슨약보다도웰니 압풍이개이며 피곤함도속히회복됩니다。

두통 현기증이 나는분은 흔이 내복약을잡수시나 위장에고장을일으키기쉬웁고 더구나 인이백이게되나니 이런때에는 본제를발느시면 고통도곳개이며 기분도 상쾌케됩니다。

근육통

담걸니시는데 빨버나 다드미 바누질을 오래안저서하시다 일어나실때 쌩기고 쑤시며 결니는데에 본제를 잇지마시고발너주십시요

家庭應急常備藥으로 本劑를어느가정에도 한개씩 준비하야두시기바라오니 이상과갓흔증세에 잘듯을뿐만아니라 평지낙상 멍든곳 또는 급작히압품을참지못하는경후에 전문가의치료를밧을때까지 응급치료에 사용하야주시기바라오며 빈때 모기에물니지안는 예방도됩니다。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함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田邊元三郞商店

8—K—18

상한음식 먹고 섭오전짜리 목숨

중독되기쉬웁기는 파는음식들

먹다남은음식도 부지럽다

음식을 적당하게먹고 운동도 적당하게해서 첫재 소화가잘되게 해야할것이지마는 또한 될수잇는대로 생신한물건을 골나서 제때에 다먹을수잇슬만치 음식을 만드러가지고 정하고 생신한그대로 제때에다먹어치우는것이좃습니다。공연히 분량을 만히만드럿다가

다먹지못하고

남겨두엇다가 상하게되면 버리기는 앗갑다고해서 얼마 엇덜라고하고 먹엇다가 용을보는수가잇습니다。이것은 절대로 주의해야할것이며 더구나 심한집에서는 여름에는 음식만드는것이 귀찬다고해서 점심때가되면 대개 냉면이나 비빔밥가흔것을 사다먹는수도잇습니다。음식점은 물론 경찰당국에서 늘 주의도 식히고 감시도하지만은 아모래도 한꺼번에 음식을만히만들고

여러사람의

손이가는만큼 철저하게 정결할수도업스며 늘생신한것만가지고 팔수도 업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여름철에 음식을 먹고 중독되는수를 알어본다면 대개는 옹식점에서 파는음식을먹고 중독되는것이 제일만흔것이니까 그러니 음식을먹고중독이되는데야 경중이잇겟습니까마는 가령 손님이오셧슬때라도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기가우선 귀찬다고해서 보통 음식점에서 식혀다

대접을햇다가

그것이 불행히 정결하지못해서 나종에 탈이 낫다든지하면 그것이 주부된 책임으로서 오작 미안한일이며 붓그러운일이겟습니까? 가튼값으로도 그음식을사다가 집에서 장만해서 먹는다든지 손님을대접하면 뒤라 입에맛는 음식을 먹을수도 잇고 경제도 되는것입니다。어느때이라도 살님하는처지에서

허는수업는일

이지마는 일은음식을 바게서 사드려오는것은 주부의 수치라고 아니할수업는것 입니다。더구나 여름과 가티 입으로드려갈 천만가지병이 맛치 기회만닥치기를 기다리는도서 위험한때에는 그래 집에서 짓은 음식이라도 특히 정결하게 만드러야할것인데 무엇이 어떠케되엇는줄도 모르는 음식점의 파는음식을 사다먹는것은 절대로 피하지안어서는 안되겟습니다。그리고 가장 음식을 정하게

해먹어야한다

는말이 낫스니말이지 사실 우리네의 반비깐은 넘우도 불결합니다。파리는 어느때나 떼를 지어 새가 다닙니다。그러니까 자연히 눈에보이지안는 미균이들 얼마나 들끌켓습니까? 그럼으로 음식을 정결하게 해먹으려면 첫재 무엇보담도 반비깐부터 수장만은 어데보다도 정결하게해야겟습니다。간장한방울만 떠러저도 반드시 훔처버릴 섬의마음이 되면 아모리 지저분한 반비깐이라도 유리딱가치 찬하게될것입니다。그리고 냄새가 나는데는 숫을부셔서 쟁반에 흘려 담어두면 냄새가 나지안습니다。

요사이 신문기사를보면 음식에 중독되엿다는 긔사가 매우 만습니다。적어도 신문에나자면 그중독된 정도가 매우 심해야 날것이만큼 신문에나지안코 여간 소소한 관계이 되엿다던지 속탈이 난것가튼것은 이루헤아릴수업슬것입니다。그러면 여름철에는 엇지해서 속탈이 만히나느냐하면 첫재로 여름에는

땀이만히나는

만큼、위장의활동이 약해지는원인하나와 그다음에는 여름음식이란 상하기쉽다는것입니다。그럼으로 여름에는 될수잇는대로

家庭메모

목이몹시마를때 산미가잇는물을

한참 목마를때는 암만 물을 먹어야 여전히 마릅니다。빙수를 먹는댓자 그때뿐이요 먹고 조곰잇스면 먹저보다 더답답증이나고갈증이심해집니다。먹는수분이 금방 땀이되여나오니까 물은암만먹어도 편찬커니하겟지만 물도짭업시먹으면 위병이나기쉽습니다。병고치러간다고 약수터에가서 물을너무먹고 되려위병을 어더오는수가잇는데 더구나집안에잇는 신선치못한물、빙수가튼것을 만히먹어리 효능이 손톱만치도업습니다 그럼으로 목이몹시마를때는 『레몬』이나 『나쓰미깡』혹은 먹는 초를 약간 먹을물에 떠러트려주산미(酸味)잇게해하지고 먹으면 갈증이 가라안습니다。

一家庭講座一

水 물 H_2O

▼물도중독물 …①…

鄭權陽

물이 공기이나 식물을필요로하고 일반생물의 생명을유지하며 그날그날의 생활을 해나가는데잇서서 하로라도업서서는 안이될 물건이라는것은 두말할필요조차 업는것입니다。사막에서는『오아시스』를차즈며 가물때에는 한줄기의비를 기다려 마지안는마음은 다물과생물의 생명과의 긴요관계를말함인것입니다。우리인체도 그중량의 십분의 륙칠이수분이라면 저간의소식을 넉넉히 짐작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물이 넘어만히공급되거나 혹은 넘우 적을때에는 생활체에 대하야 어느정도의 나쁜영향을 밋치리라는것은 누구든지、생각할수잇슬것입니다。이문제는 물이우리들에게대하야 업슬수업는물건이면 업슬것일사록 상당히 생각하지안이치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이가티 생명에대하야 중대한관계를 가지고잇는물이 넘어만히흡수되거드러올때에는 대체엇더한 변화를 생물체가밧겟느냐 하는것은 다만 생물구이나 한번생각할필요를 늣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대하야 옛마디적어보려합니다 옛날부터 물에체하다는 말이잇습니다 즉 물을과도히 동물에게 먹이면그 동물은 경련(痙攣)을이르키고 더 심하면 마충내 족어버린다는사실을 알고잇습니다 다시말하면 물을넘어 만히먹으면 대단히위태한 경우를아르키며 나종에는 생명에 까지도 관게 되다는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내가누누히 이약이 하지 아니、하야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짐작할수 잇슬것입니다。그러나 당면한문제는 여기잇습니다 이러한사실이 잇다할지라도 이것이 정평이 잇는듯이 례를들면 승홍(昇汞)린(燐)비산 아편 양잿물갈모진가튼것이면 별로히 이상할것도 업슬것입니다。그러나일상 우리들이 그대로 혹은 여러가지상태로 마시고 잇는물로 인하야 귀한생명까지도 잃는다고하면 우리들은 『아참그런가』하고 문제를 간단히、덥허둘수、약이냐『독이라면 그성질흥은 작용은 엇더하냐』하는 의문을 풀지안코는 도저히 리해할수 업슬것입니다。그럼으로 선결문제로 물의중독(中毒)이라는 현상이 엇지하야 이러나느냐 또는 엇더한 관계하에 진행되느냐 하는 의문을 푸는것이 가장중대한 문제가 될것입니다。물의 중독을 말슴하기전에 먼저 량해해두어야 할것은 수대사(水代謝)에대한 대강 한관게 다시말하면 입으로마신물이 몸 전체를 롱하며、거기서 엇더한 작용을한 다음、마즈막으로 땀이나、소변이나、내쉬는숨과가티 박그로나아가는 관계를 대강아라둘필요가잇습니다。

이때에 가장중요한관계를、가지고 잇는것은 얼마나 한물이필요하며、또 그필요한량에 대하야、어느정도의 물을마시느냐 하는것입니다。가장평범한리치이지만은 수분이 만히배출될때、례를들면 땀을만히흘리거나 심한운동을 하거나 피를만히 흘니거나 갈증(渴症)이나며 물을 만히마시게됩니다。그럴때 상당한 분량의 물을 마신다하야도 그다지 큰장해는 업는것입니다。요컨대 이러한때에는 몸가운데수분이 어니정도까지 적어젓슴으로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물이 필요하게 됨으로 좀만흔 분량의물을 마시여도 그부족한 분을채운 남어지물이 작용을하게됨으로 이러타할해를 끼치지 안는것입니다。그러나 이와반대로 비교적 물의필요가 만치안흘때 부출업시 물을만히 마시면 분명히 가벼운 물의 중독증을 이르키게 되는것입니다。여름밤차기전에 랭수등을 마시게되면 이튼날아츰에는 배탈이나게되는것입니다。보통 수도물이나 우물물을 이가티 만히 마시게되면 신체내에잇는 염분(鹽分)이 그곳으로 몰려오게됩니다 이러하야 평균상태를 어루후고 잇는것이 깨지게되며 자연 신체내에 변동이 생기게됩니다。여기서 물중독의 제일보가 생기는것입니다

世界文藝童話集

별의아들

英國 오스카·와일드作　② 崔秉和 譯

四

별의 아들은 이러케해서 나무꾼의 자식들과가티 길너젓습니다。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기도하엿지만 별의 아들만은 일년、이년 지날사록 뛰여나게 그얼굴이 아름다워갓습니다。곱슬곱슬한 곱슬머리는 수선화의꽃과도 갓습니다。입살은 샛빨간 꽃닙파리와도 갓고 눈은 맑은시내가에핀 오랑캐꽃과도 가텟습니다。몸은 낫질을아니한 들쪽의나무 수선과뚝가텟습니다。

그런데 이러케 아름다운것이 도리혀 이아헤에게는 해가되엿습니다。별의아들은점점 거만하야저서 자기보다 아름답지못한 동리아해들을 엽수히 보기시작하엿습니다。그뿐아니라 그는 장님이나 병신이나 또는 어듸인지 몸에 흉한험집을 가지고잇는사람들에게 욕을하고 물상히녀이지안코 돌을던지고 동리에서 쫏차냇습니다。그래서 이동리로 어더먹으러오는사람은 한사람도 업섯습니다。

나무군과그의안해는 몃번이나 이아해를책망하엿는지 몰릅니다 『너는좀밧구어 생각하여보아라 다른사람이 너를 데가다른사람에개하듯이 하여보아라 너는 엇더케할터이냐。그것을 생각하면 그러케 지독한일을 사람에게할수가 엇지안코나』그러나 별의아들은 태연하엿습니다。날마다날마다 동리아해들의 괴수가되여가지고 새와버레를 괴롭게하고 거지에게 돌을던지엿습니다。

五

어느날일이엿습니다。이동리를 한사람의 거지가 여편네거지가 지나가게되엿습니다。그옷은갈갈이 찌저지고 발은멀고험한 길을거러와서 피가흘러나배여서 참아바로볼수업슬만치 가엽슨모양이엿습니다。그런데 별의아들이 여편네거지를보자 즉시 동무아해들을불너서 이러케말하엿습니다。

『자、모다힘을합하야 저년을이 동리에서 쫏차내자。저런더러운 거지를 이동리에 드려오게해서는 안된다』그리고 자기가 압장이되여가지고 그여편네거지에게 돌을던지기도하고 욕지거리도 하엿습니다。그런데 그거지는 이상스럽게도 하참 아해의 얼골을 뚜러지도록 바라보더니 움직이지안코 서서잇섯습니다。

바로그때 그근처 나무장에서 나무를패고잇든 나무군이 뛰여와서 그를책망하엿습니다。

『너는 또 이러한 고약한짓을하고잇고나』그러나 별의아들은 태연하엿습니다。

『이러케하는것이 나쁠일입니까? 당신은 나의친아버지가 아니지안습니까』하고 분쭐하고 보람해서 큰소리로 떠들엇습니다。

『나는 너희친아버지가 아니지만 너를 길느기에 여간 고생을한것이아니다』이나무군의말을듯고 그여편네거지는 갑자기 큰소리로 부르짓드니 그만 기절하야버리엿습니다。

六

나무군의 정성스러운간호로 얼마만에 정신을차린 그거지는 나무꾼에게 이러한것을 무럿습니다。

『당신은 저아해를 숲속에서 어드셧다고 말삼하시엿지요。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일이 아닌가요』

『그럿습니다 십년전입니다』

『그때 혹시 저아해는 별을수놓은 금빗외투를 입지안엇습니까』

『네 바로 그외투를 입엇습니다』나무꾼은 이러케대답하고상자속에서 그외투를 꺼내서 보혀주엇습니다。그거지는 그것을 한번보자 깃붐에못이기여 울면서말하엿습니다。

『아아 그아해는 내가숲속에서 일어버린 내아들입니다。나는그아해를차즈러 온세상을 도라다니고 잇섯습니다。』나무꾼과 안해는 즉시 별의아들을 집으로 불너드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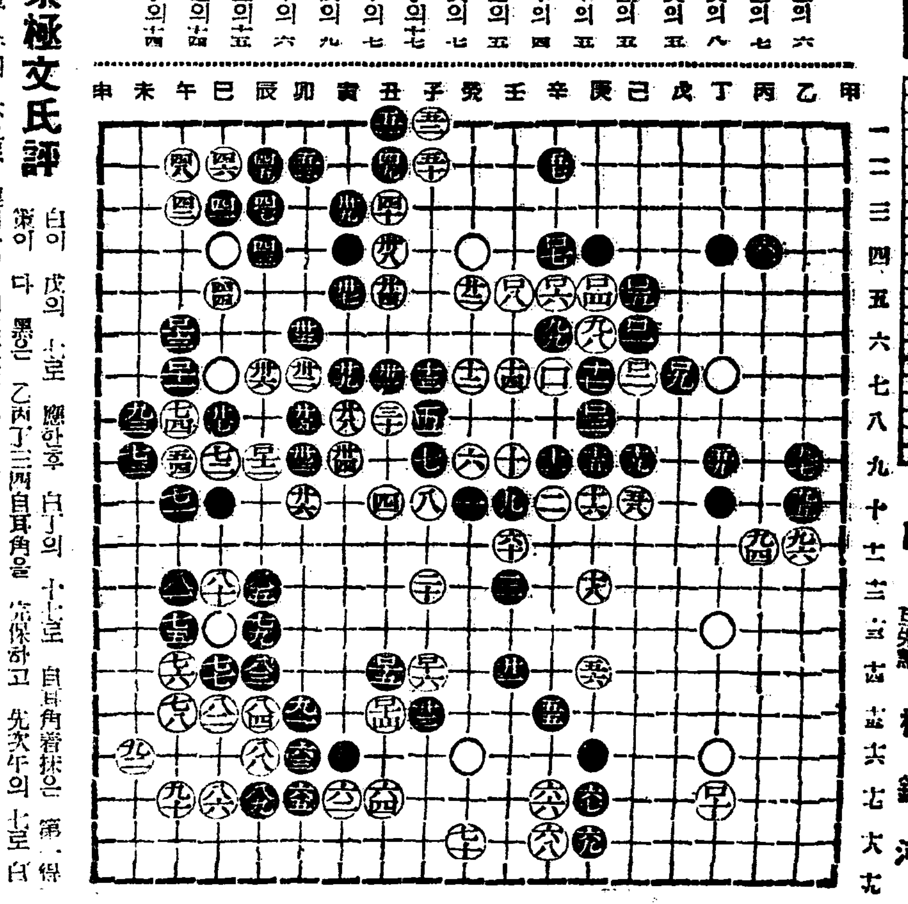
『애 너의 정말 친어머니가 오시엿다』

『내가 너의 친어머니다』그거지는 반가운목소리로 말하엿습니다。그러나 별의아들은 그거지를 본체만체하고 아모말도 하지안엇습니다。

『당신들은 엇지 사람이요。갈갈이찌저진옷을입은 보기흉한거지가 어머니가 될리가업소』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閔仲植　互先黑 柳鎭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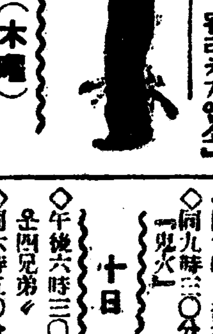
【●〇一】己의六　【○〇二】己의七　【●〇三】庚의八　【○〇四】庚의五　【●〇五】己의五　【○〇六】辛의四　【●〇七】辛의五　【○〇八】壬의五　【●〇九】戊의七　【○一〇】丁의七　【●一一】午의七　【○一二】午의六　【●一三】辰의九　【○一四】丑의十五　【●一五】丑의十四　【○一六】子의十四

◇蔡極文氏評

白이 戊의十七로 應한후 白丁의十七로 自目角着手한은 第一得策이 다 黑은 乙丙丁三兩自耳角을 完保하고 先次午의十七로 白을 關하고 午의 六으로 連田하니 利莫大焉이다 白이 丑의 十五로 庚의十六 黑將區內攪亂次로 扶着하니 疑案이 重疊이라 黑의 應變이 十分注目處로다

放送

八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講座 마음의꽃 全一景二場 李河宗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外 寫眞과여름 申秉均
◇同八時 趣味講話 朝鮮藝術史話(一) 文一平
◇同九時一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高永寿 大峯 朴錄基
◇同三〇分 놀양 一、놀양 二、압산打鈴 三、뒤산打鈴 四、山念佛 五、朴淵瀑布 金逸淳 任彩鳳

九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獨奏 一、『圓舞曲』『悅惚』…알버ー트作曲 二、미논의가보트…토ー마作曲 三、달밤의公園…宋一九編曲 四、오ー솔레미오…伊太利民謠 五、다뉴ー브江의물결…이바노빗치作曲
◇同六時五五分 家庭講座(二)『日常生活과寫眞』申秉均
◇同八時 趣味講話 朝鮮藝術史話(二) 文一平
◇同八時三〇分 南道雜歌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平調 四、小春香歌 五、휘모리 宋萬甲 李花中仙
◇同九時 (東) 世界音樂巡禮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鬼火(一) 庾秋岡

十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ヶ정다운四兄弟ヶ 元裕珏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常識講座 ヶ日常生活과寫眞ヶ(三) 申秉均
◇同八時 趣味講座 朝鮮藝術史話(三) 文一平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갈매이신세 二、幻影 三、외로운꿈 四、南江行 五、휘人바람 六、梨園哀話 七、沙漠의恨
◇同九時 歌謠 O·K 一、局樂 寄游 二、春眠曲ー패밀리·뮤ー직 乾坤歌 金蓮紅 大峯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鬼火(二) 庾秋岡

曆

八月九日(金) 舊七月建癸未(大)十一日 丁巳 土 婁 收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 開市·納財에依함
▲立秋八月(舊七月初十日)
▲末伏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舊七月廿六日)

連載小說 求婚行 (六)

嚴興變 作　高一 畵

R양은 참외를 까거서 절반을 갈게 쪼개드니 씨를 훌터 한쪽을 접시에 담어 내압흐로 면저권한다

나는 참외쪽을 비여먹기보다도 R양의 몸매와 행동을 은근히 살피에 정신이쏠렷다。

굼다한입、비마진 딸기와가튼 좋흔 눈、동그스름한 얼골 옷둑한코、거기다가 명랑색(明朗色) 파우드를 발러 복사빗가튼 두볼、귀미트로 땀방울이 흘러나린것가튼 얼궁진자리、거기에 날려부튼 두세가닥의 윤래나는 머리카락。

『지금 몃살이지? 참』

하고 나는 불숙 R양에게 말을 던지고는 그의 표정을 살히엿다。

R양은 별로 붓그러운 긔색도업시

『저요? 뜻박게 나이는 왜물으서요?』

하고 방그레 미소를 띄우면서 참외 껍질과 씨를올든쟁반을들고 일어난다

R양이안으로 들어가자R군은 다소 걱정스러운 어조로

『저게 발서 열아홉인데 큰일낫서……』

하고는 먼듯참외 꽁지를 집어내던진다。

나는 조흔 챈스나 붓들은듯하야

『무엇이 큰일이야?』

하고 R군의 이야기를 재촉하니까

『시집보낼일이 걱정이란 말일세……』

하고 내가 내여노흔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집어내여 성양을그어댄다

그러치안터라도 실상은 내입으로부터 먼저 R양의 결혼문제를 끄집어내이려든 판이라 나는 물실호긔라 생각하고 좋단도직입적이엿스나

『……자네 누이결혼문제는 내게 책임지워줄수업겟나?』

하고나서 R군의표정을 살히니까

『어듸 적당한 배우자가 잇나?』하고 계딱지를 슬먹이며고때든다

『굴세 나도늘생각해왓는데…』

하고 잠깐 말을 끈혓다가

『꼭 내생각에 적당한 사람이하나 잇기는 하지만……』

하고 말것을 흐리여 버리자

『누구ㅡ느데말이야?』

하고 궁금하다는듯이 눈알을굴닌다。

『허기야 나나 자네말에 적당한사람이라고 반드시 자네누이의눈에 든다고는 못하는것이지만……사람만은 참훌륭한 사람이하나잇네……』

하고 나는 일면 뒤입에 대한 방어진(防禦陣)을 치면서 R군 기분을 살히엿다。

『좌우간 그럼 그사람을 한번보세!』

『그것보다도 난선저 자네누이가지금 자네부모나 자네모르게 약혼이나 해논곳이나 업는가알고십네!』

『약혼? 그것이야 업슬겟세……』

『그럼 련애쪽은 하는곳이업지도 안켓군!』

하고 빙그레 웃으니까

『그야 모르지만…… 나로서는상당히 감독하는중이니까……』

하고 다소간 제누이의 신분을 옹호하드니 다시말을니여

『좌우간 적당한사람만이잇스면 얼른 결혼식혀 치워버리는게 안심이될러인데……』

하고는 발(簾)사이로 안뜰도적 해보면서、책상설합을 열어한뭉텅이의 편지봉투를 꺼내여보이면서 가느단목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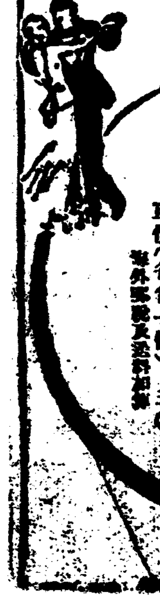
『여보게이게무엇인지알겟나?』

하고 빙그시 웃으며 다시 설합에 집어너흐면서

『소위 이게 내가 압수(押收)해논 러부、레러!일세!』하고는 또한번 밧사이를곱기여군다。

마터 그것이 제누이에게 오는련애편지를 압수함으로써 제누이를 감독하고잇다는것、재누이가 그만큼 무수한 미지청년에게서 련모(戀慕)의 화살을맛고잇다는 자랑과도가티 보이엿다

그만큼 R군은 제누이를 보호하고잇서、R양의 결혼문제에대하야선 그의 부모이상으로 책임감과 결재권을 가지고 잇는것이라하야 나는 몃칠이지낸뒤에 또한번 구체성(具體性)을 띄이고 레방할것을 약속하고 뻐꾹라나무숙의 매아미소리를 들으며 R군과 R양을 작별하고 서문밧 정차장라고 서대문정 중동호무의 집으로 행하엿다。



人氣の焦點 話題の中心

八月八日 八月九日 八月十日 三日間

三越 丁子屋 平田百貨店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스피ー드化粧料로서 全日本女性間에 自然的 好評을 博得하고잇는

タンゴドーラン 의化粧隊는 의宣傳마네킹隊가 鮮地의 女性들게 가장進步된化粧法을 傳授하러갑니다

× ×

タンゴドーラン 은從來의 平凡한白粉과도 달너서 白粉下를 안쓰고 겨우三十秒의 短時間에 몰라볼마큼 어엽븐化粧이 된는 完全한化粧料로서……

얼굴빗에 따라서 一層어엽븐게되는 タンゴドーラン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 하얀분에는……白色
얼골 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 거문분에는……黑肌色
얼골 창백한분에는……黃色
얼골 붉은분에는……新鮮色
舞臺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圓)·五〇

マックス·ファクター 宣傳隊來る

文壇時感

貧弱한 우리네의 話題

表現的意志를 일흔精神

① 金 晉 燮

「요새滋味좃소?」하고 뭇는것은 우리가 아는사람을맛낫슬때 慣用하는 인사말이다。 그런대 이인사말에對해서『滋味라니 무슨 別滋味잇겟소、그저 그럭치요!』하고 對答하는것은 不幸히 내호올로만이 쓰고잇는말은 아닐것이다。『滋味좃소?』하고 뭇는사람도 무슨 別다른變化가 그사람의 生活內部에 잇슬것을 豫期한끄레 뭇는게아니오、『그저그럭치오!』하고 對答하는사람도亦是滋味가 업스니까 滋味가업다

正直히 告白함에 問題는 不過하지 禮儀를表示코저하는 躊躇스러운마음에서 滋味잇는것을 于先에 暫時숨기여 滋味업다는것은 아니다。적어도 이것은 내一個人의 經驗에依하면 참으로嚴肅하리만치 現實的인 生活事實의 赤裸裸한 吐露에關한다。우리가 이것을 지나가는것인사의 無反省한一齣로서 凡然히 取扱하야버리면 勿論問題는 이에그치는것이겟스나 그러나 萬一에우리가 흔이 交換하는 이평凡最初의 對話속에 우리民族이 가지고잇는 生活哲學의 조흔表現을 구다여 차저본다면 어떠할가? 나는 어찌되는까닭인지 알수업스나 이平凡한 對話속에는 個人的生活에對한 切實한 興味보담도

不運한 同一環境에 對한 [illegible]民族的共感이라고한 [illegible]요이 흐르고 잇는것이 더욱힘차게 늣기어지어 견될수업는까닭이다。사람이란 어느程度까지 마음에업고 生活에업는 모든아름다운말을 할수잇는가를 나는 알수업는者이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잘 그리고 가장만히 말할수잇다면 그것은 確實히 自己와 自己의 生活에對한 報告를 中心으로 삼는것이아니면 아니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이리하야 우리가 生活의 餘暇에 아는사람들과 자리를가티한結果 簡素한인사말로서 打開되는 우리의 會話가 어떠케 進行하며 그리하야 그

會話의 內容이果然무엇인가를 한번생각하여본다면 엇더할까? 사람이 혼저안젓기는 더욱견듸기어려움으로 우리는 마음맛는 벗을 求한다。우리는 그와 가티 안저 우리와 우리의生活에 對하야 意見을 서로交換코저할뿐이아니라 美學的饒舌에 對한人間의 要求는 相當히헌세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一日親舊를만난다든지 또는 社交場裡에 參與한다든지하고보면 우리의生活의無內容과 여긔서 由來하는 精神의 無氣力은 만흔境遇에잇서서 우리의 表現的意志에 動力을주지못하는 結果로부터 우리들사이에는 너무도만히 愚鈍하고無生命하고 [illegible]

時間이 經過된다 나는여그서 모든 種類의 說敎는 滿腹의 結果에서 오는것이란말을 생각지 안흘수업는것이지만 事實에 잇서서 無爲와 貧困의 街巷은 社交와 會話術의 發達에 가장 不適當한 土壤이다。여러말할것업시 우리가 한번 우리가 現在에 가지고잇고、또 그것이나마도 가지지아니하면 아니될 日日의 話題에 對하야 直接으로 反省하는 餘裕를 갓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와가티도 話題라할만한 共通된 話題를 엇지못하고 무어에 對하야서도 일즉이 充分히 말할이업섯든 事實에 새삼스러운 놀라움을 禁치못할것이다。나는 話題가 우리들사이에全然히업다하는것이아니다。나는 우

交際社會의內容이 貧弱하다는것이아니다。나는 實로 그것이서由來하는바우리들의生活內容이 너무나 單一하다는것을 여긔에問題삼을수잇스면고만이다。나는 모든朝鮮사람이 朝鮮이라하는 特殊한 生活環境의 制約속에緊縛되여 何等의 變化相을 보이지못하고잇는 한個의가장흔한 生活事實을除外하고 우리의 興味와 思想이 集中되는바 日日의 話題를 規定할수는 到底히 업는까닭이다。朝鮮은 이제 하나의 큰苦難에 直面하고 잇는듯보인다。그리하야 무엇보담도 이 危急속에서는 自己自身의 肉體를건지는것이 最緊한 일인듯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果然무어에 對해서

長冗히말을해야 될것이냐? 職業은 設使그것이어떠한것이든間에 그것은 우리에게 糧食을 提供하는까닭으로서 貴重한것이지만 多幸히우리가 이것을 붓잡을수잇스면우리는永遠히 그의卑賤한 奴隷다 그러나 우리가不幸히 이것을붓잡지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붓잡을때까지 굶을수밧게업다。나도 確實히 그러한사람의一人에 틀님업지만 文學을 專攻한 親舊들이 文學으로서는 먹고살수업는까닭으로 專門에 어긋진就職을하고 就職하든 그날부터 그만둔다하든 사람들이 그後十年이 가까운오날에도 어떠한榮達이업고

昇進이업는 그자리에서 快快不樂하고잇는것을나는 잘알고잇다。그리하야 우리가 間或만나는 조흔機會에 서로 말을 무어냐하면 사람이먹고산다는것은 얼마나 어려운일이냐、하는 오즉 한個의 話題에 그친다。

民謠採集記

—慶北地方을中心으로—

(完) 城大文學部 金 思 燁

少婦의설움

씨집오든 사흘만에(시)
싸어머니 하는말삼
어재왓든 새미느라
딸밧매로 앙이가나(안이가나)
가기사 가지마는
바숄흘라 못가겟소
개흘털고 가이거라
헌부다 내八字야
銀가락지 찌든손에
호망짜리 위헙이고
비단치마 입든모매(몸에)
행지치마 위헙이고
銀비녀 찌르든머리
자막머리 집어엉고
삼시끌을 매고나니

정심때가 당해왓내
洞內點心 다나와도
이내點心 아니나와
點心이라 차저오니
사랑에 범가튼시아버지
어재왓든 새미느라
고곰사나(그것을) 일이라고
點心때도 덜대왓나
애라요년 물너처라
큰방애라 드리오니
시어머니 하는말삼
애라요년 물너처라
멕슬이나(며슬이나) 매고왓노
삼시끌을 매고나니
點心때가 當해왓소
애라요년 물너처라
고곰사나 일이라고

點心때가 덜데왓나
미구가튼 시누액시
어제왓든 올끼야
아래왓든 올끼년아
고기사나 일이라고
點心때나 덜대왓나
챙칼가튼(小刀) 시아버이
애라요년 밥비가라(빨리)
너가튼년 우리집에
망하고야 말겟고나
슬푸다 내八字야
點心이나 주는것이
三年무군(묵은) 버리밥을
식끼꿈에 무처주고
七年무군 꼬랑장을
조꿋에 발라주내
수깔이라 주는것은
鄕書房내 맛딸애기
통이유달 숫가대를
꺽거설낭 던저주고
할길업시 도라가내
이내房에 드리가서
눈물이라 여러노코
아홉폭 주리치매
한폭따다 꼭갈하고
두폭따서 바랑짓고
한폭따라 행건하니
실푸다(슬푸다) 내身勢야

大門밧게 조차나니
떠남이엿시 도라가내
깜둥까지 발밝발고
책을을 엽헤끼고
봇짐가튼 시선비가
그것판가 넝가시라
우리두리 기픈人情
이떠지(이처럼) 배척하며
常身은 便하지만
내안길이 엇지될고
부대부대 가지마오
낙누로(落淚로) 離別하고
金剛山 기픈절에
새소리 벗을삼아
도라가내 도라가내
낭군님아 잘잇그라
이재가면 언제오리
삼작게 고목낭게(사리에)(나무에)
꼿치피면 도라올가
핑풍에 기린닭이
해를치면 도라올가
가오가오나는가오

柳致眞氏華婚

우리文壇에서 獨特한 劇作家인 柳致眞氏는 今八日에 外金剛溫井里 新豐寺에서 華燭의典을擧行한다는데 新婦는 今春本報新春文藝의 『줄행낭에 사는사람들』이란 當選戲曲의 作者 沈載淳孃이다。이뒤로 두분이 닷투어 戲曲을 만히쓰신다면 우리劇壇에는 새로운 異彩가 빗날것이다。

盲人의福音

機械眼發明

蘇聯"우크라이나"科學院에서

「키에프」「우크라이나」發聯合郵信」近者『사베ー트』聯邦「우크라이나」科學院의物理學會에서는 盲目者에게普通印刷物을 읽히는、機械가發明되엿다고한다。이新機械는、人間의 視覺作用은 눈과눈을 腦에連絡식히는 視神經에依한 生理學上의 原理를應用한것으로서 特別이만든 顯微鏡이눈의 水晶體의 代用이되고 電氣寫眞裝置가잇서서 網膜의作用을대신하며 電流가 視神經의 役割을한다고한다。顯微鏡의맛흔左便에서 右便으로움직이는 紙上에印刷物을옴겨노흐면 强力한電光이顯微鏡下를 通過하는 印刷物의A、B等의文字를비추인다。그래서비추어진 文字의 影像은 곳顯微鏡『렌즈』의直上部에잇는 電氣寫眞의 裝置에依해서 受取된다。그리고映像의形狀及濃度는 擴大管을通過하는 電流에 强弱을 生한다。이電流는 盲人의指端이 觸하는 적은『핀』에引導되여서各 文字는 一定한數만되여잇다。「알파벳트」各文字에對해서 두다리는 數와 그間隔이一定해잇는때문에 그것만 習得하면 [illegible] 盲人은 쭈잇는데 點字의 必要는조곰도업스리라고한다。그럼으로이機械가 實用化되는날에는 盲人의 [illegible]은非常히 크리라고한다。

黑風

韓 龍 雲 作　金 熊 超 畫　【97】

정담(偵探) 7

순옥의말은 왕한이와 수작한 사실을 정반대로 말한것이엇다 자기가 왕한에게 대하야 정당치 못한 눈치를 뵈이고서 왕한이가 자기에게 대하야 무례한행동을 한것처럼 성원에게 말한 것은 진실로 무슨 의사인가 그러나 성원은 순옥의말을 밋지 아니할수가 업는것이엇다

『그래 왕한이가 초면에 순옥씨에게 대하야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더란말이오 그자를 당장에 가서 혼을낼까부다』

순옥은 쌍긋웃고 성원의손을 힘잇게 잡어다리면서

『무얼 그래요 제야 아모리하든지 나만 조촐하면 그만이지 또 왕한의 그러한 마음을 리용하야서 그쪽의 비밀을 알게된다면 도로혀 무방하지……그러타고 왕한의 뜻을 밧어준다는 말은 아니야요 또 오해하시리다』

『오해가 무슨 오해요 나는 순옥씨에게 대해서는 오해를 안키로 작정하얏소』

『하하하 우서죽겟네 오해를 작정하고 하는 오해가 어듸잇서요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오해는 진정한 오해가아니것지오 오해를 정해로 알고서 하니 걱정이지오』

『아모러턴지 순옥씨가 나에게 오해를 하지안토록 하시오그려면 나도 오해를 아니하것지』

순옥은 두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참 웃는다

『오해를 하게하야서 하는 오해는 오해가 아니라 정해지오 오해를 하게하는일이 업는대 오해를 하는것이 정말 오해여요 나더러 오해를 하지안토록 하라고요…… 그러면 그른일을 하더라도 당신에게 오해만받지 안토록 하얏스면 고만이것소 그러그려면 아모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마음에만 맛지아니하면 오해를 할것이고그른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속여서 비위만 마추면 그사람에게는 오해를 하지 안컷지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대하야는 정직하게만 할터이요 당신이 오해를 하든지 정해를 하든지 그것은별문제야요 나는 내인격이잇스니까요』

성원은 말을 길게 하다가는 뜻밧게 충돌이 생길까 염녀하야 우스면서

『순옥씨의 말슴이 모다올소』

한뒤에 작별하고 나가버렷다

순옥은 성원을 보내고 혼저 우섯다 그리하고 무슨 생각을 하얏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엇다

순옥은 수일후에 다시 왕한을 차젓는대 손수건 한감을 가지고 갓섯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뵈옵고 간 뒤로 어쩐지 마음이 괴로워서 만한 고통을 바덧습니다』

『무슨일로요』

『이러타할 무슨일이 잇는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야 말하자면 우연히 바닷가에 갓다가 진주를 보고 그것을 엇지못하고 빈손으로 도라온것 갓하요 아마 선생님의 인격에 아지못하게 끌녀든 모양이야요』

『감사합니다 나도 순옥씨를 날마다 생각은 하얏스나 하로도 이저보지는 못하엿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마음으로 이저주시지 안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가 업습니다 육체로 떠나주시지 안는다면 고통이 변하야 깃봄이 되겟습니다』

왕한은 순옥의말이 너무 야비(野卑)한데 놀내어서 삼분의 흥미를 감하얏다 그리하야 그 대답을 무에라고 하얏스면 조흘는지 알수가 업서서

『순옥씨의 말슴을 잇지아니하겟습니다』

하는 모호한말로 방패막이를 하얏다

『선생님 송성원씨와친하서요』

하는 순옥은 말머리를 돌녓다

『친합니다 서로 맛남지는 오래지 안치마는 정으로 말하면 특별히 친합니다』

第一回 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開催時日 九月十九日(初選) 同二十日(公開豫選) 同廿一日(公開決選)

『申請期限』 八月末日까지(本社學藝部로) 『場所』……本社大講堂

『曲目』

『聲樂』 들어라 종달새　오ー내사랑　꿈을딸하서

『피아노』 베에산뽀트쏭　소나타七二　마즈르카

『바이올린』 레겐데中一節　안달류챠中一節　콘니드라이中一節

콩쿨樂譜集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番查員 『피아노部』金永煥、朴慶浩、『바이올린部』洪蘭波、桂貞植、蔡東鮮、『聲樂部』玄濟明、金文輔、…『詳細事項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世界唯一의 「아미노」酸製劑

體力과 精力을增進하는

胃腸의弱한분에는特히榮養劑의選擇이必要하다。
그러나胃腸의消化를無視한榮養劑는虛費이만타。
◎消化를必要치아니하며그대로榮養이되는것은
「아미노」酸製劑ポリタミン(포리타민) 뿐일것이다。

◇榮養을增進함

「포리타민」의 主成分이된 各種「아미노」酸의特異作用

吾人이肉類、鷄卵等을重히함은、其中에蛋白質이만흔까닭이나、其蛋白質도、그대로는榮養이아니되고、반다시胃腸에서消化分解되야各種아미노酸이되며비로소吸收同化되야身體의成分이되는것이올시다。그럼으로各種아미노酸을包含한「포리타민」을먹으면일즉이消化의必要가업슴으로胃弱한사람도体成分이되며衰弱을恢復합니다。

◇입맛이난다

아미노酸은人体細胞를剌戟하야細胞의作用을하며新陳代謝를旺盛케합니다。따라서食慾(입맛)이나며消化液의分泌을놉히며日常食物의消化와吸收를促進합니다。即「포리타민」은이와갓치 아미노酸의二重榮養作用으로体力을增進하야抵抗力을强하게합니다。

◇「호르몬」을맨든다

아미노酸은또人体의諸機能을鼓舞하는「호르몬」이란內分泌物(이것이不足하면糖尿病、低腦兒、不姙娠等、여러가지障碍가이러남)을合成하는重要한生理的作用도가지고잇습니다。

포리타민의効能

貧血、榮養不良、衰弱、虛弱에……(液狀單味)
健胃、病後恢復、產前產後에……(기나・キナ)
冷性의婦人、肺結核、肋膜炎에……(그아야콜・グアヤコール)
惡性貧血、神經衰弱、皮膚病에……(알젠・アルゼン)
虛弱兒童、黴毒疾患、佝僂病에……(요드・ヨード)

單味
小瓶(一五〇瓦入)一圓五五錢
中瓶(三五〇瓦入)二圓五〇錢
大瓶(五〇〇瓦入)四圓五〇錢

藥入
小瓶(一五〇瓦入)一圓六〇錢
中瓶(三五〇瓦入)二圓六〇錢
大瓶(五〇〇瓦入)四圓七〇錢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 大五製藥株式會社

雇主虐待에含怨 全家族沒殺企圖

밥에다多量의양재물을섞것다

未然에發覺되여被逮

【平壤】고주의 여지업는 학대에 반항으로 고주의 전가족을 몰살식히려다가 붓잡힌가련한고용인이 잇다 평원군순천면 사직리(平原郡舊川面社稷里)을석정노효손(盧孝孫)(一七)의 집고용인평북박천(平北博川)출생김찬국(金贊國)(一?)은 주인의 집식구들의 학대가 넘우도 심함에 분개하여 가족전부를 죽여버릴 계획으로 지난달 이십륙일 아츰밥 가운대에 다량의양재물을집어너헛스나 악취가잇고 밥맛이 심상치안키때문에 먹어든밥을토하고 마러서 결국 목적을 달하지못하고 살인미수범인으로수일전에 평원서에체포되여 취조를 밧고 잇다한다

災民五百名을 洪氏指揮救護

【義州】지난사십일 미증유의홍수가 통군동일대를 전부 생킬때에 피란민 오백명을주진(永鎭) 면장 홍종준(洪鍾俊)씨 지휘로 그섬의 농촌지대인 예수교례배당에 수용하고 우선백미삼석오두 소미삼석오두 옥촉서삼석으로 응급구호하엿다고한다

청년회에서는 본보영고탑지국 후원으로 제일회 개인정구대회를 수일전 제오교코ー트에서 개최하엿든바 각처선수의 다수참가로 대성황을 이루엇다 우승은 영 ... 고향 진명진(金?)씨 미명진(李?)씨 조의고하다

留學生歡迎會

【沙里院】사리원 귀향청년회(沙里院歸鄕靑年會)의 발기로 지난 오월오후시에 당지면생화교(?) 강당에서 유학생 환영회를 개최하엿는데 송상빈(宋相彬)씨의 의미잇는 개회사로 열리엇는데 사리원유지 이십여명과 학생사십여명이 한자리에 모히여 유지측 인정수(印廷洙)씨의 환영사와 학생측 답사가 잇고난후 간장담과 여흥이 잇슨뒤에 동오시경에 폐회하엿다

燒酎容器挾雜한 不正仲介業者

巨額의不正利益自由

【平壤】각보=소주의 용기를협잡하여 부당한 리익을 밧고잇든 소주중개상 리병규(李炳奎)(三?), 박병을(朴炳乙)(三?), 오룡준(吳龍俊)(?), 김중욱(金仲旭)(?), 김병려(金炳呂)(三?)등 다섯명은 대동서에서 준엄한 취조를밧고 잇는데 지금까지 자백한것만도 매명이천사오백원식의 부당리익을 엇고 잇슨것이 판명 되엿슴으로 계속취조중이다

永興郡各面에서 夜學設立計畫

【永興】함남 영흥은 소화륙년도영흥농조(永興農組)사건이후 민간측 경영인 사립학교(私立學校)와 농촌야학(農村夜學)등은 거이다 무긔중지를 식히고 이섯다고한다 그러므로 한동안 미취학아동의 문맹퇴치가 심히 암담한처지에 처하야 잇던바 지난달이십삼일오전여덟시반부터 영흥군청(永興郡廳) 사무실에서 군내십삼면 면장의 편게자가 타합회를 개최하고 일반군민의 문맹퇴치등 문제를 토의한결과 야학이필요하다는 의견을 군당국에 제의하엿던바 군경당국에서도 금후야학에 대하야는 당국에서 공인하는 자는 어데까지 그를 장려후원하겟다고 하므로방금각면에서는 각리를통하야 그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義州大水害後報

黔同島全滅狀態

農作被害만三千町步

【義州】사십팔년전무자(戊子)이후에처음잇는 대수재에 의주군주내면서호동(州內面西湖洞)은 동검다지(黔洞, 多智)의 두섬으로 되엿든바 다지도는 피해가 만치안흐나 검동도는 거의 전멸상태인데 그가옥의붕괴 도괴 매몰 칠수등 이로형용할수업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잇서서는 약이할은 수확할수 잇스나 피해면적이 약삼천정보에 이십팔만팔천원이라하며 가옥의 류실도괴, 칠수 상황은 다음과갓다

▲黔同島＝總戶數一六四戶中에流失八、埋沒八、倒壞一四、半壞二、浸水二二九、

▲多智島＝總戶數一五七中에倒壞一、浸水一三六

寧安庭球盛況 本報支局後援

【寧古塔】당지 조선인 긔독교

寶庫扶安地方은 凶作을難免形勢

旱魃에暴炎까지連日繼續으로

東津幸安等平野狼狽

【扶安】계속적인 한발에 곡창의부안지방은 년사에심히 불리하야 전답작물은 대부분 고사하든바 전번의 조나린비로 겨우해갈한듯하더니 요지음 계속적인 폭염에 한포기도 못심은곳은 말할것도업고 기앙답도구렬하고 모든다 타버려 쌀의산리전부중의보고 부안동진상간일대평야(東津、三十一帶平野)는보기에도 처참하게 생겻다 만일 일간에 비가 내리지안는다면 부안지방은 오할이상의 대감수를 난면하리라는데 한해면적은 아래와갓다

總面積 一萬二千町步
未秧畓 七八〇町一反
三分作 三、四二三町七反
五分作 一、三二二町九反
計 五、五三五町八反

豊、眞連絡道路 改修陳情準備

【豊川】황해도 풍천진풍간(豊川眞風間) 도로개수문제는 십여년부터 지방주민인 진풍면민(眞風面民)과 풍천지방 주민의요로서 그개수를 군면당국에 즉접 혹은 간접으로 요망하여왓스며 군당국으로서도 개수의필요를 인정하여 역대군수들로서도 그실현을보고서 노력해왓스나 실현을보지 못하고 밀여나려옴을따라 관계지방민의 교통상불편은 말할수업시 심하여왓스며 진풍면과 풍천사이에 어떠한 중대사건이 발생한다 하여도 당국자들로서도 마음대로교통치못하리만큼 되여잇는 관계로 농촌발전상 적지안흔 지장을 줌으로 면민들은 자긔면당국의성의가 박약하다고 날이갈사록 비난이 놉하서·심지어 진풍면에서는 면내유지들로서 군당국에 진정하라고 준비중이라는바 이도로는 등외도로일망정 지방에잇서서 중요한 도로인은 당국자들로서도 인정하는터이라 한다

平鐵兼二浦線 輸送增力計畫

【兼二浦】겸이포 일본제철소(兼二浦日本製鐵所)에서는 최근군수경긔(軍需景氣)의 호영향을 바더 동사의사업발전은 실로현혀한바 다시 동제철소에서는 명십일년도에는 현재수선중인 용광로(熔鑛爐) 일긔(一基)가 부활증설될 예정이라는데 이에따라 필연적으로 겸이포선(兼二浦線)의 개선이 요망되게되엿다 현재 겸이포선의 일개년간 수송력은 십만돈(十萬噸)으로서 부활확로가 증설실현되는 때에는 도저히 현재의 수송능력으로는 용할수가업서서 이대책으로 평철당국(平鐵當局)에서는 동선을 확장하리라하며 현재사용중인『아구레형』긔관차도『텐다ー』식긔관차로 바꿀터이라한다

物價騰貴를口實로 飮食業者暴利

馬山府民의不平滿滿!

【馬山】마산부내 각음식점에서는 최근물가등귀를 구실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되여 일반의 불평이 점점놉다는바 그사실은 종래로 잡식(雜食)한그릇십전 탕반(湯飯)(고음국)한그릇에십오전하든것을 각각삼분의일이라는 십오전과 이십전식으로 올렷는데 이것의 원료대를처보면 잡식류칠전과탕반십전내외의것을 약베나되는 폭리를 취하는것으로 더욱이 근일와서는우육상(牛肉商)과도 리해대립이생겨 마산의 명물이라고하든곰국도 폐지해노코 말성중이라한다

▲延白서一名溺死

【白川】지난사일오전십이시경에 연백군 은천면한교천(延白郡銀川面漢橋川)부근에서 청년 일명이 목욕하다가 빠저죽엇는데 그는 본적을 고양군숭인면 안암리일이팔번지(高陽郡崇仁面安岩里一二八)에 두고 현재 백천온천호텔에잇는 김중긔(金仲基)(一九)라는바 시체는 세시간후에야 건지엿다한다

그릇된母性愛

세아들敎育爲해 竊盜질한寡婦

【平壤】세아들을 양육하고 교육식히고저 절도질을 한든 그릇된 모성애(母性愛)의 장본인이잇다 평양부내설암리(薛岩里)리칠성(李七星)(三?)이라는 과부는 아비업는 세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악전고투를 하든나머지 할수업시 다른사람의 금품을 승락업시 가저오기를 시작하여 금품으로 벙어리인장님은 맹아학교에보내여 지금은 멀단련할수잇게 만드럿고 장은아들도 보통학교에 통학을 식히고 잇섯다 그런데 수입업는 녀자의몸으로 자식들의 교육을 식힐뿐안이라 여유잇는 생활을 한다는 점에대한 의심을가진 평양서원은 이녀성을 검거해다가 취조한결과 방안과 창고간에서는 수업는 의복과 유긔가 만히발견되엿고 피해자들까지 발견되엿스나 자긔는 절대로 그러한사실이업다고 버티고 잇다 아비업는 세아들의 양육과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귀여운모성애의 발로라고는 할수잇스나 그러케 찬성할수도업는 눈물거운사건이므로 취조경관도 입맛의동정을가지고잇스며 장래를 경계하여 서방할 의향이라한다

平壤 夏期學術講演會

▲時日 八月九日午後八時
▲場所 白善行紀念館
◇主催 平壤高普 同窓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그女子의一生 (176)

방랑편 春園作 夕影畵

옥남이가 보기에 정희는 제나이보다 다섯살은 젊어보이고 자기는 다섯살은더먹어보엿다. 『부정한 생활은 고생스러운생활과 가티 사람을 늙게한다』던 어떤 책에서 본말이 올타하엿다. 게다가 정희의 얼굴에는 숫처녀의 맑음이 잇고 자긔의 얼굴에는 마치 늙아먹던 게집과 가튼 흐림이 잇섯다. 마음의 생활은 속일수업는것이라고 옥남이도 말로는 틀엇지마는 깨닷기는 오늘이 처음인것 갓탓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는 말짱한것, 하나는 다 헌것이라고 집어내일것 가탓다. 더구나 여긔 눈 압해 누어잇는 금봉이와 저쪽 방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잇는 숙희를 생각할때에 이르바 자유주의자라는, 가장 새로운 사상을 가진 선구자라는 자긔네의 인생관이 끗이 어떠한것을 보는것 갓탓다. 행인지 불행인지 옥남은아직도 한번도 잉태한 일은 업섯다. 만일 숙희나 금봉과 가티 잉태까지 하엿던들 자긔도 숙희나 금봉이가 밧는 괴로움을 아니 밧을수업섯슬것이다. 이러케 생각하고 옥남은 혼자 무서워햇다.

『옥남언니, 무슨 생각을 그리하고 잇서요? 영자언니가 어떠케 살아가는냐니깐』

하고 금봉은 옥남이가 제게 관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보아서 대답을 재촉하엿다. 옥남이가 줄곳 금봉의 얼굴을 바라보고 잇섯기때문에 금봉이가 그러케 생각한것이엇다.

『응 영자?』

하고 그제야 옥남은 몸을 한번 웅치기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영자말이지? 그저 그러케 살아.』

『인제는 쌈도 아니하고?』

『싸움? 싸움을 할 새도 업겟지. 요새에는 일은 줄창 시끌로 도라다니니깐. 강연으로, 지회설치로, 또 싸움 말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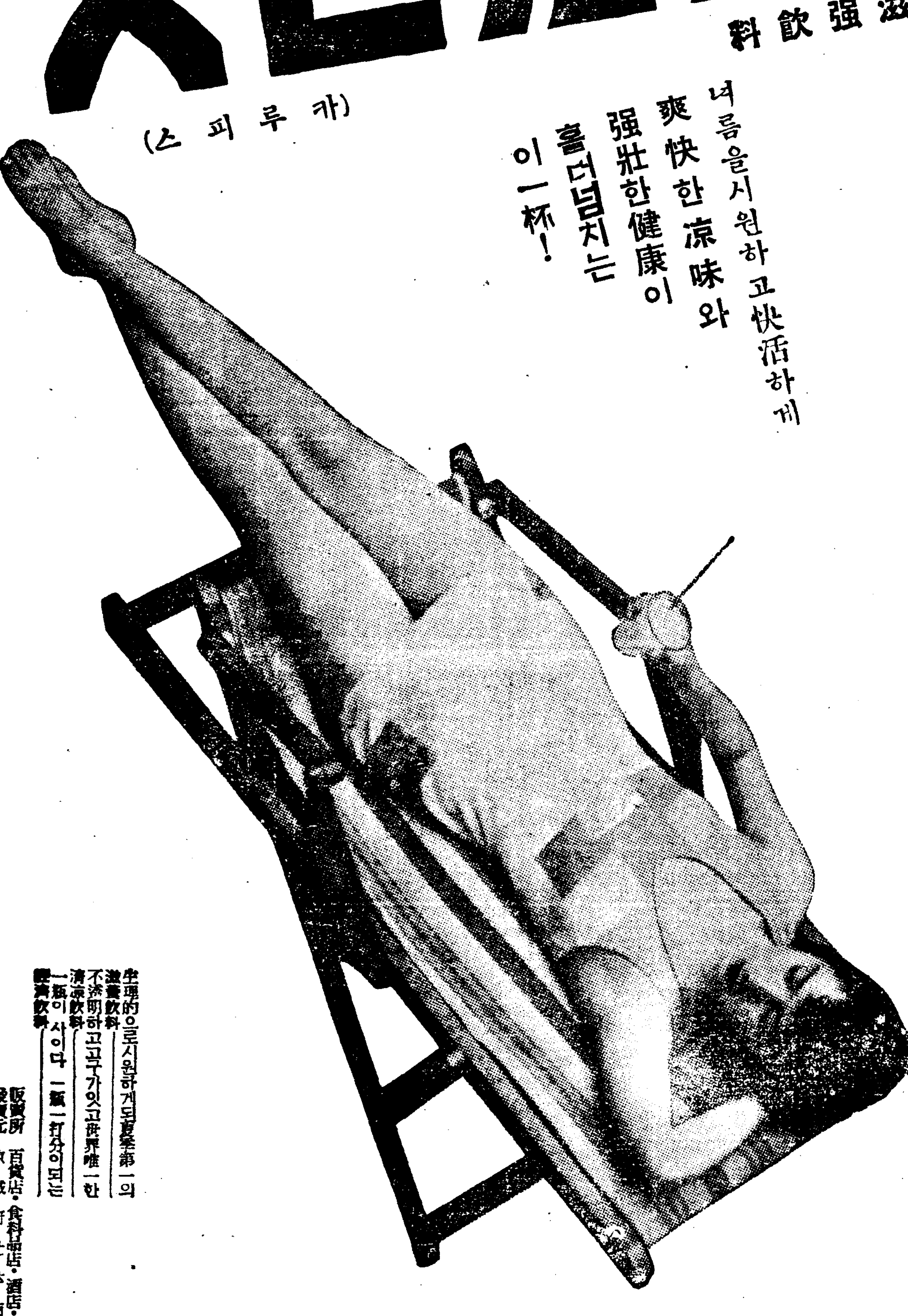
『그럼 영자언니는 더 짜징을 낼걸. 동부인해서 다니지.』

『하하 동부인을 어떠케 해?』

하고 그제야 옥남은 전가티 쾌활한 긔분을 회복하고 말소문도 엽니다.

『또 우리 옵바가 그런데 입이 인제는 꼿찰안해 조중술을 아는 모양이라고. 혹시 집에서 만나면 매우 원만해 보이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옵바더러 안해 조종술이란 무엇이오? 하자를 모욕하는 말 아니오? 하고 대들엇더니 옵바 대답이 장관이겟지. 무어라는고하니 여자조종술이란 그리 어려운것이아니라고. 그저 고양이 달래듯만 하면 되다고 그리겟지. 그게 무슨 소리오? 하고 내가 골을 내닛가. 그러니깐 이 냥반 수작 보아요. 고양이란 대단히 독하고 패려궂은 증생이 되어서 맛서기만 하면 앙앙거리고 할퀴지마는 먹을것이나 잘 주고 속으로는 밉더라도 술술 쓸어만 주면 조아하는 법이라고. 여자도 그러니라고. 더구나 요새학교ㅅ개나 댕긴 계집애란 더욱 그러니라고, 글세 그런단말야. 하도 어이가 업서서 내가, 옵바는 남자 조종술은 아우? 그랫지. 그러니깐, 옵바 말이그럼 몰라? 그러길래, 무에요? 어되 아시나봅시다. 그러니깐 바 말이, 사내야 여자들한테 칭찬만밧고, 아이고 이일을 어찌해요? 어떠케 좀 해주세요하고 제게 의론하는 모양만 보이면 죽을찌 살찌를 모르고 허겁지겁하는니라고. 사내란 여편네가 우거지 오만상을 해가지고 짜드럭거리고 앙절기면 앙절거릴사록 짓밟아줄 생각이 나는 법이니라고. 그래서 영자더러도그런 비결을 일러주엇건마는 그것이 원체 도고해서, 잘 안듯는 모양이지마는 학재는 그래도 알아들은 모양이더라고. 그리고는 말야. 옵바가 또 하는 말이, 학재가 아직 여편네 조종술에는 초대가 되어서 여자를 자긔와 평등으로만 여기고 진리니 의리니 하고 리론을캐는 모양이라고. 여자란 힘탑사람 문자로이성은 업는 동물이니깐 진리니 의리니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당치도안흔 리론이라고, 그러니깐 여편네 조종 하는 법이 그저 고양이달래듯 귀에주거나 그러치아니하면 고양이 을르듯 울러주거나 두가지 길밧게 업니라고. 그런데 학재더러 그말을 햇더니 학재가 픽픽 웃기만 하는 모양이지마는 결국은 내말이 진리로고나 하는 것을 터득할날이 잇스리라고, 이러케 훈녀단 말야. 그러니 내가 가만 잇겟서? 그래서』

하고 옥남은 픽웃고 잠깐 쉬인다.

滋強飮料
カルピス
(카루피스)
녀름을시원하고快活하게
爽快한涼味와
强壯한健康이
흘러넘치는
이一杯!

生理的으로시원하게되는夏季第一의滋養飮料
不透明하고고구가잇고世界唯一한淸凉飮料
一瓶이 사이다 一瓶一打分이되는經濟飮料
販賣所 百貨店·食料品店·酒店·藥店
發賣元 京城府 辻本商店
顧問 理學博士 三宅驥一氏
製造元 カルピス製造株式會社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御推獎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갈러지는것가티몹시아플때!!
●바늘로쑤시는것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아프지안튼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餘毒으로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잡숫는名藥입니다만일頭痛으로 腦를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꼭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것갓흘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商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왓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대登錄商標帽子印잇는 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두통과치통에 진노ー
赤두 包통 의약
痔는 オセロ 오세로 痔藥으로自宅에서治療 .30 .50 各地藥店에有함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머리의손질은지금이제일적당합니다
화왕샴푸로자조감어주십시요
녀름에는 기름과땀으로 곳더러워집니다. 오래동안감고둔즉땀과몬지에저저서비듬이일어나고 냄새가날뿐안이라 머리털의윤택은일코, 머리털이잘빠지고, 끈어저서일쑥히여지고결이납버집니다.
화왕샴푸는 머리털의 더러운것을씻서처바리고 속살까지 깨끗이하는동시에독특한영양제가작용하야서결과 윤택을조케하고 성장을도읍습니다.
有名百貨店雜貨店에잇슴

長髮이면二回分 短髮이면一回分
一個五錢
M8164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

八月八日ヨリ十一日迄四日間短期特別公開
入場料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大都映畵超特作現代劇
原作脚色 岡田敬 監督 吉村操
五味國男、琴絲路主演
乃木將軍
千鳥共業社特別提供
世界的猛獸使總出演猛獸征服映畵
ベラリンバ
猛獸映畵の穐明し猛獸はどうして馴らされる!
大都映畵超特作時代劇
總指揮河合德三郞、監督石山稔
海江田讓二、月宮乙女、千代田綾子主演夏の夜におくる……
生靈の燃ゆる夜
武士崩れの蜂三郞兵エが劍と戀に人生流轉の怪異ものがたり
櫻井町 大正館

八月七日밤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三十分始開
◇大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喜劇 메리의 三百頭 全六
監督 하리조ー브라운氏
主演 작크오키氏 작크헤리氏 진자로자ー스嬢
大都映畵社特作品 現代劇
就職はしたけれど! 全十
監督…太田辰三氏
主演…東郷久義氏
◇鮮滿活動寫眞社提供
實話劇 最後의警鐘 全
監督…윤긴간氏
主演…白馬…아라비야君
麻浦桃花洞 電話龍山 一三三 桃花劇場

鮮航會解散決定과 基準運賃制定說

混亂裡의米輸送界

昭和五年十一月以來 朝鮮米積取를 하야오던 鮮航同盟會員橋本會長이 大阪으로 돌아간後에 卽時 總會를열고 解散키로 決定하엿다한다。鮮航同盟會는 朝鮮米를 日本內地로 輸送하는데잇서서 日本內地의 有力船會社로 組織한 會로서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와 運賃을 前年十一月과 四月까지、五月부터 十月까지의 二期卽冬、夏季로 分하야 協定하야가지고 輸送하야 왓스며 이會에 參加치 안흔것을 盟外船이라한다。그런데 이 鮮航會가 왜 解散케되엇는가 이解散으로 朝鮮米輸送에 어떠한 影響이잇슬가 等을 살펴보자。

×

鮮航會와 朝鮮荷主間의 交涉이 決裂된것은 今年四月로서 여러가지 工作과 總督府當局의調停이 잇섯슴에도 不拘코 結局에잇서서는 五月一日부터 實施할朝鮮米運賃協定은 一、鮮航會로부터 朝鮮米穀商이 바더오던 割戾金中 一部를 日本內地 米穀商이 自己便에도 分與하라고 主張한것 二、鮮航會에서 運賃을 引上하자는것 等이 內面理由가되고 表面으로는 賃率問題에도 關키前에 協同販賣問題等으로 昨年 차이엇든 感情때문에 決裂된 以來 仁川、群山等의 穀商은 盟外船을 利用하야왓고 鮮航會에 對하야 頑强히 對抗하얏섯다。그런데다가 鮮航會에는 尼崎汽船外 船主를 비롯하야 三三會社의 動搖가잇자 장황해지고 一方 그동안은 夏節期이라 그래도 견딜수잇섯스나 今秋新穀期를 압두고 朝鮮穀商과의 交涉工作이 一層深刻해짐을 따러 鮮航會는 最後解散에 至코 만것이다。

×

鮮航會가 解散된後는 鮮航會員이던 各船會社와 非會員이던 船會社가 서로어울리어 所謂自由積取를 하게될것으로 朝鮮米輸送은 말할수업는 混亂이 豫想되는터인바 이에 對한 意見을 綜合해보면 一、鮮航會가 決코 橫暴한것이아니엇고 賃率도 歐洲航路其他에 比하야 決코高率이아니라하야 再建하자는것 一、鮮航會는 從來 積極하얏고 運賃問題로 對立되어온것은 穀物聯合會의 實力과 態度가 柔弱하엿던때문이다。自由積取는 決코 大地主本位가 안되며 主意로서도 自由積取가 조흐나 鮮航會와 提携할것이엇다는것 一、自由積取가 理想的으로는 조흐나 大量의 朝鮮米를 輸送하는데는 圓滑을 缺키쉬우니 穀物商聯合會를 改組하야强固한 團體를 만들어가지고 有力한 船會社와 協調하자는것 等으로 一致치못하고 新穀期에도 이現狀으로간다면 輸送上 重大한問題가 생길모양이다。

×

이에 또한가지 重視되는것은 朝鮮米輸送紛糾를 틈탄 大阪神戶의 受荷主 卽 朝鮮米移入商들의 態度이니 最近消息에依하면 朝鮮內米穀商 卽出荷主와 受荷主인 자기네가提携하야가지고 船會社와 運賃等을 交涉하자는것이다。그리하야 從來 受荷主인 자기네便에서 맘대로 버티지못하던것을 이機會에 내세우고 朝鮮側을 誘引하자는것으로서 船會社、朝鮮米穀商團者 協定만도 될성이 만흔것이 大阪 神戶等地의 受荷主까지 介在해서 떠들게된다면 米輸送은 一層紛糾가 甚해질念慮가 업지안타。

×

그러나 結局에잇서서는 新穀期안으로 何等의 打開策이 잇서야할것이니 自由積取는 運賃이나 大量輸送에 不圓滑할것、鮮航會로서도 存續하나니 眞心으로는 다시 妥協할생각이간절한것、朝鮮穀商으로서도 態度强硬이 오래 繼續되다고만 斷定할것이 아닌것、總督府側에서도 新穀期안으로 何等의 方策을 慫慂할것等 諸點으로 或은 一部에서 말하는 强力的 出荷主團體가 생기어 鮮航會를 中心으로 有力船會社와 새로운 契約이 成立될것으로도 보인다。

×

그리고 또 한가지問題는米運賃의 基準制定說이니 卽米價公定價를 制定하얏는데 況穀統制가튼 至難의것도 最高最低公定價를 制定하얏는데 米運賃쯤이야 基準을 設치못할것이잇스나 基準運賃만 制定해준다면 運賃紛糾란 一掃될 것이라는 것이다。米價公定은 政府의 權力으로되는것이나 鮮米運賃은 穀商과 船會社間의 立場이 相異하며 또는總督府로서는 船會社(日本內地의船會社)에 對하야서는 何等의 權力을 가지지못한때문에 自由競爭인 私經濟에 對하야 簡單히 基準을 制定키어려운關係上 그實現性이적고 설령 實現된다드라도 基準運賃決定時마다 또한紛糾가 不絕할것으로서 朝鮮米輸送問題는 그리쉽사리解決될것이아닌것으로보인다。

農村工業化의一步

石炭液化副産物을材料로

具體案樹立코計畫中

從來 朝窒系 永安石炭液化工場에서는 諸種油類로 製造하는工程에서 『소켓트』『베크라이트』『에나멜』等의原料로되는 貴重한 副産物이 多量으로 生産되는것을 全部大阪方面에 移出하든바 最近 그것을 朝鮮內에서 企業化할 具體案을세워 着着 實現을볼 計畫이라는데 이는 主로 農村工業化를 目的하는것으로 各地適當한處所에 工場을配設하고 農村의 低廉한 勞動力을利用하야 農民의 共同作業場이라는 名目으로 各所에 該工業의建設을 볼計劃이라한다

産米改良의實績

二百三十六組合、一萬六百戶

耕地面積一萬七千五十町步

租五十七萬石生産

總督府調査 昭和十年三月末現在 産米改良組合及 이에準한 組合數는 合計 二百三十六組合으로 組合員은 一萬五百九十一戶 右團體員의 耕地面積은 一萬七千五十町步에達하야 九年의 正租生産은 五十六萬九千四百石이다 그리고 組合의 七十七%는 動力機를共有하야 稻扱及精白等의共同作業을하고잇스며 九年中에 生産正租를 共同販賣한것이 百二十九組인바 各道別 産米改良組合普及은 左와如하다

	數	人員	耕作面積
京畿	七〇	一、一二〇	三、〇〇二町四
忠北	四	四〇八	一、三二三、〇
忠南	四九	二、六九九	二、六七三、四
全北	二〇	五四四	一、五四〇、二
全南	三	三六	四三〇、五
慶北	一	二五	三三、五
慶南	二一	五七九	一、四〇七、七
黃海	一〇	七六	一、三五七、八
平南	—	—	—
平北	二九	二、一七三	四、九九四、九
江原	三	四一九	六二六、〇
咸南	六	六二五	三五三、〇
咸北	三	一五五	二七〇、〇
合計	二三六	一〇、五九一	一七、〇五〇、〇

日窒大豆工業 工事中止事情

日本窒素本宮大豆工業의 工場建設中止問題에 對하야 野口遵氏의 말에 依하면 同工場은 過去一個年有餘에 亘하야 延岡日窒工場에서 硏究한 씨스템에 依하야 大豆의 化學的處理를 하기로 되엇는데 同씨스템의 一部分이 이미 他人의 特許로 되어잇서 部分的으로 改造할 必要를 生하엿슴으로 이 改造가 完成하기까지는 一切의 工事를 停止하기로되엇스나 全然中止하는것은 아니라고한다

府內倉庫 在品減少 七月末現在

京城手形交換所調査=七月中의府內倉庫業績은

	個數	金額
入庫高	五〇、〇五四個	一、一〇四千圓
出庫高	六六、八六二	一、一五五
月末現在高	一〇四、八〇二	三、三六四

으로 前月越高에 比하야 個數에잇서서 一萬六千八百二十九個 金額에잇서서 五萬餘圓의 減少를 示하얏다

本溪湖煤鐵廠軌 日滿折半出資合辦

【電通新京七日發】從來大倉組와 舊張政權과의 私的契約에 基하야 經營을 繼續하고잇든 本溪湖煤鐵廠軌는 今回 日滿折半出資에 依하야合辦의 特殊會社로 하고 滿洲國法人團으로 하기로 되엇다 이改組와함께 同廠軌는 滿洲國監督下의 經營으로 될터이다

될듯하고안되는 府內氷合同

個人과會社의兩派分立

府內의 氷業者의 大合同은 客二十二日의 合同決議에 依하야 드되어 成立될듯이 보이든바 同日의 合同決議에 際하야 十一業者中 鈴木氷庫京江物産의 兩者는 參加치안엇슴으로 이를除外하고 合同會社를 設立하기로하고 前記兩者의 勸說은 道當局에 一任하얏다 그런데 그後 個人業者는 모다 前記兩者의主張에 共鳴하야 十一業者中 個人業者九名은 種種의 事情으로 結束하야 京城、朝鮮兩天然氷會社라는 別個로 會社를 創立할案을 세우고 目下 奔走中이고 氷合同은 個人業者와 會社의二潮流에 노니어 紛糾를 繼續하고잇다

道當局의方針 奈邊에잇는가?

天然氷業者의 合同은 日本內地 滿洲의例에 倣하야 天然氷을 全廢식히고 人造氷만으로 하게하기爲하야 現在亂立한天然 人造兩業者를 一團으로하야 一社統制主義의 道當局의方針에 依하야石礒原次郎 高田友三郎 粟相三氏의 調停을 慫慂한바잇섯슴으로 이번道當局의 態度에 자못 疑問을 가지고잇다한다

對印綿織物 統制委員會 品種別配定決定

【電通東京電話】商工省에서는八日午前十時부터 第八回 對印綿織物統制協議會를 開催하고 日印通商條約에 基하야 對印輸出綿織物調整第一年度 第一次(十月以降六個月)配定額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品種別數量及 第三年度 第二次에 配定할 二千萬碼 入札의件을 各其如左히 決定하얏다

一、第二年度 第二次品種別輸入數量

生無地	八千百萬碼
縞附	二千六百萬碼
晒	千九百二十萬碼
色物	七千三百八十萬碼
合計	二億碼

一、第三年度에 配定할 第一年度第一次의入札豫定數量

生無地	八百十萬碼
縞附	二百六十萬碼
晒	百九十二萬碼
色物	七百三十八萬碼
合計	二千萬碼

北朝鮮各港에서 穀物運賃을引下 南朝鮮과同率로!

北朝鮮各港對 日本內地穀物運賃은 南朝鮮米穀運賃의 引下餘波를바다 船主貨主間에 引下協議中이든바 드되어 南朝鮮과同等으로 引下하기로되어 淸津阪神間標準七十一圓을 二割引下하기로 되엇는데 九月一日에 遡及適用하기로되엇다

無煙炭、黑鉛大打擊 佛印産때문에

今春初來의 法貨動搖以來 佛領印度無煙炭並 黑鉛의 日本內地輸入은 採算點에 乘하야 朝鮮産無煙炭及 黑鉛은 相當히 深刻한 脅威를 밧고잇다 卽無煙炭에 對하야서는 흔게-1의 輸入高은 今年 急激히 增加하야 七十一萬噸이 豫想되어 朝鮮內 炭의 地盤을 蠶食하야 이미 平南北部炭은 品質이 劣等한것은 賣行이 全然 梗塞하야 昭和八年 無煙炭 景氣에 乘하야 新設된 鑛床은 東業整理를 하지 안흐면안될 狀況으로 되엇다 一方 黑鉛도 佛印産의 廉價品橫行으로 年初噸當 二百五十圓이든것이 最近百五十圓으로 低落하야 黑鉛礦行은 大打擊을 밧고잇다

間島農作物 收穫豫想高

◇…耕作面積은減少

間島總領事館調査=間島地方今年의 耕作面積은 卄三萬一千町步로 前年에 比하야 七百五十八町步의 減少를 示하얏는데 이는 罌粟栽培의 增加에 依한 自然減少이다 主要한 農作物收穫豫想高는 如左하다 (單位石)

大豆	七一五、九九五
小豆	二九、三六七
粟	六〇四、二八一
水稻	一五一、五五六
陸稻	一、四五九
玉蜀黍	二五六、〇二五

度量衡制度調査 委員會官制公布

【電通東京電話】米突法問題再檢討를 爲하야 組織되게된 度量衡制度 調査委員官制는 八日附官報로써 公布되엿는데 商工省에서는 調査會委員으로 白根書記官長以下五十二名을 決定하고 御裁可를 仰하야 內閣으로부터 近近 任命될터이다 그리고 委員은 內閣統計局長法制局長官、資源局長官、各省次官 貴衆兩院議員及 民間의 學識經驗者이다

小野田製品 移出販賣?

洋灰聯合會의 對朝鮮 消費洋灰問題對策은 結局朝鮮移出을 輸出과 同一하게보기로되는 모양으로 이境遇에 朝鮮小野田洋灰의 對策은 未決定이라는데 一手販賣인 京城三井의 意見을들으면 結局 朝鮮製品은日本內地에 을쓰고 朝鮮製品은 日本內地에 移出販賣하게되는 모양이라한다

長津江發電 繰上實施? 貯水의順調로

長津江水電의 葛用里貯水池는 七月二十一日 堤堰을막고 貯水를 開始하얏는바 八月六日에는 取水口까지 增水하야 目下의 流下量으로보면 八月九日에는 海拔 一千四十九米(第二 臨時放水路)까지 增水하고 八月二十日까지에는 海拔一千五十二米 卽第一期堰堤를 넘도록 滿水할豫定임으로 十月十日의 通水發電豫定을 繰上하야 諸工事를 急히하기로되엇다

紡錘抑制無効 遂一千萬突破?

操短擴大에서片番操業誘導

七月末九百八十萬錘

【東京電話聯合】紡績聯合會는新設制限에 關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增錘의 抑制에 努力하고잇스나 各社의 利害關係等으로 그 効果를 보지못하야 紡績聯合會加盟會社의 今年七月末의 据付錘數는 드되어 九百八十一萬二千餘錘에 達하고 이에 加盟會社의 九年末 据付錘數卄萬四千九百八十錘를 加算하면 紡績의 生産能力은 多年 斯界의 目標가 되어잇든 一千萬錘를 突破하게되엇다 그리고 目下各社의 計畫狀態로 보아 兩三年中에 一千二百萬錘以上으로 되리라고 豫想되어 이結果 紡績會社는 드되어 操短의 擴大에서 漸次 片番操業으로 誘導하지안흐면안될狀態에 잇다하야 그 推移는 注目되고잇다한다

今日財界 (八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二七五	三高
大阪期米	先限	三〇二一	六高
仁川三等米	一石	三〇三〇	一〇高
京城一等白米百斤		三一六〇	不變
正租(仁川)改良		八錢六厘〇	
一斤價在米		八錢五厘五	

◆市中金銀價

	一匁買	一匁賣
金	十二圓十八錢	十二圓三十三錢
銀	二十八錢〇厘	二十四錢五厘

◆株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東新	一三七五〇	一〇低
朝新	一三七七〇	一四〇高
日産	六九八〇	九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一九八〇〇	一五〇低
大阪棉花	五九〇〇	四〇低
大阪人絹	五八六〇	一〇〇高
大阪砂糖	三三〇	—
고무現	三九錢五〇	先三九錢五〇

米日爲替强保

【經濟七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前日과比하면 賣 二十九弗二十七仙으로 一仙高이오 買 二十九弗二十五仙으로 一仙高이다

東京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三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三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楊西面에點燈

京電營業區域擴張 京城電氣에서는 楊平線路의 經過地에 잇는 楊平郡楊西面을營業區域에 編入하야 一般으로 電燈을 供給하기로 되엇든바工事를 急히하야 年內에는 點燈을 보게될터이라한다

商況 (八日)

株式 東京高로急進

前場强含 今前場은『스톡』綿絲低이나 突込警戒로少堅寄後 昨後引에 比하야 日産七十錢高인 六十九圓六十錢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八圓十錢 大新同價인 八十三圓丁에 各大引되고 日魯五十二圓三十錢 東京電燈 四十五圓八十錢 日鑛新三十六圓三十錢 日石三十八圓七十錢 西合新十八圓六十錢 東拓新十圓 滿鐵六十二圓八十錢이잇섯는바 東京大引高로 一齊氣强하얏다

後場急進 後場은 東新前引高를移하야 東新百三十七圓五十錢에 暴騰、日産六十九圓九十錢에 好勢裡寄後 依然强調裡에 大引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宇治電四三〇 ▲大阪商船四〇八〇 ▲東拓二六〇〇 ▲鮮滿開拓三三〇 ▲米倉新一四〇 ▲玉川水道一三〇〇 ▲窒素 ▲帝國人絹 ▲滿粉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寄	前引	取組
日産	三五	五一	五五、九五〇
東新	四〇	五〇	七〇、四五〇
大新	三三	五九	七八、一一〇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三、九五 △一 ▲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五五

東新의罫線觀

後의 回復을 期待할지라도 同額에 達키는容易치안타 어떤罫線硏究家의 東新今後觀을 들어보면 如左하다

『東新은 十四個月間이나 百三十七圓을 中心으로 浮動함과 如斯한일은 未曾有의일이다。자리가 대단히 편안한모양임으로 떠나지를못하고 뱅뱅돌고잇서 賣치못하는모양이나 東新은 五圓棒 十圓棒 三十圓棒으로 크게보면볼수록 買할市勢가 아니오 賣一貫의 市勢로서 下落途中의 中間操合에 不外하다』라하며 또 『이것을 二十五圓棒으로 보면 過去인푸레景氣로 五六本을 뒤틀 올리고는 反撥하야 上伸하던것이 再昨年秋부터 一本으로 이數本의 上足을 下切하야 버리고 百十九圓九十錢을보이고 나서비로소 上折하야 第一回의 戻機를 作하얏다。僅一本의 最初의 戻로서 安心하야 買할수업는것은當然치안흔가? 적어도 四五本의 下切을 返發한後가 아니면 買할수업다』는것이다。

八月市勢如何

昨今의株價가 好利廻로 低金利 繼續은 疑心치안지만 인푸레景氣가 今後 昂進하야 事業界가 好轉될 可望이업기때문에 靜中動도업고 八月市勢亦是靜中靜으로 豫想되는터인데 八月의 反動高期待는 日魯崩落으로 全然 飜弄되엇스며 或은 軟派의 積極的買込이 全般的으로 잇슬것가튼 危懼를가지게되엇고 暗雲이 除去되어 市況에明朗性을 恢復케된다면 重工業以下의 諸株에 潛在한 買人氣가 勃發하야 秋市勢의 好展開를 期待할수도 잇것지만 現狀으로는 그時期를 豫斷할수업서 人氣의廢敗가 買氣를 積極化케하지못하고잇다

日魯前途悲觀

日魯는 四、五分減配說이 流布되며 漁獲不振說、日露漁業條約改訂交涉悲觀說等으로 昨年四月十三日의 四十九圓七十錢을目標로 賣叩하야 五十一圓臺에까지(大阪今前場은七十一圓臺)떠러지고 一部弱氣는 三十五圓說까지 唱하는 程度로 惡化되엇다

◇減配難免=【電通 東京電話】日魯漁業 今年度의 業績은 昨年에 比하야 不良狀態를 呈하고그로因하야配當金은最少限一分減을 未免할形勢인데 七日發表의 五日現在의 狀況은 豫想에比하야 增加한것은 鱒의 十萬箱이고 會社의 黃金箱子 紅鮭는 激減하얏다 卽 紅鮭는十六箱으로 昨年의 五十七萬箱에 比較할은 安當치안흐나 一昨年의 二十八萬箱에 比하야도 今

市場六感

株

日魯株崩落으로 全般的買氣不振하더니 今前場東京大引高로 東新百三十七圓九十錢 日産七十圓丁▲이대로 좀더올러갈것이냐 또꺽기느냐?▲罫線上當然히 떠러저할것이 十四個月의 保合으로 市勢를 堅實히하고 低價留을 保合으로 有利하얏다는 變形的樂觀氣分이 잇기는 하나 이氣分本位의 觀測이올은지 大船의罫線으로 보면볼수록 買一貫뿐이라는 純然한罫線上의 觀測이올을지 두고보아야할일▲그러나 조금만弱點이잇는것이면 이것저것 賣叩하는것이 昨今의 株界로서賣叩키쉽고 買煽키어려운 時世인것을보면 充分히 株界의底固가되지안흔 證據인지도모른다

米

東阪兩地는 그럭저럭七十錢丁反撥을示하엿스나 當地는 僅히五十丁未滿의 反騰▲아즉도 新甫發會價를 恢復하지못하엿스니以上의 高價는 남아잇다하여도 過言이아닐뜻▲堂島市의 田中眞一派는 一時傍觀狀態로 잇다가 다시買出動▲田中眞이買占한다고 市勢가 반드시 올을것은아니지만 高橋一派가또 한 大買物을 抱擁하고잇스니 仕手觀으로 市勢가 容易히低落치할모것을前期▲賣로 高橋氏의 當限十萬石買에 對하야 抗戰할者-果然그누구?▲山種一派가 絕對陣營를 死守하고 잇스나 四圍의事情이 敗軍之將이란 別名을 免치 못할모양▲軟派는 稻作의 良好를 말하게되는 때는 硬派는 在米의 品拂로서 應答하게되다▲果然 新穀米의 今後가 如何할지 結局 天候如何로서 決戰?▲先限買는 찰아리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그러나 當中兩限마은 買占하는것이得策일뜻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期米 反騰後에伸惱

前場反高 昨後場阪地三十圓〇五錢止와 共히二十七圓八十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十三錢인八丁高를持하고 二十七圓九十錢인十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十九錢으로 十七錢에止場함을 作하야 二節九十八錢을 最高로 結局八十九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七圓八十錢에 六丁低로 始場後 細刻하야 四節八十二錢에 鈍重이고 別欄가티 止場하다

硬軟共히警戒 結局天候注目

新甫十限이發會한後 約五十丁의 低落을告하더니 東阪兩地의續騰을作하야 約五十丁의反撥을示하엿다 그러나아즉도 殺賣價를上廻하지못하고 愼重伸惱함을보면 大體買方은 押目待의狀態로高價엔躊躇하는觀이업지안코 賣方亦警戒不怠하야 賤人的行動을 加하지못한즉 結局市勢는 當分此邊에서一張一弛할모양이다 實로米價의 今後如何를一考하면挽近天候의良好로 日本內地及朝鮮地方을不問하고 稻作의樂觀을呈하나 그러나 압흐로 天災期가 重疊한만큼 何時에天災가 突發할지몰라서 買安心을 하지못하게되며 그反映으로는 在米의 去益枯渇로 需給의不安이 不無하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今朝肩代內容이中限一萬四千四百石 受方海堀 渡方田中眞三五〇〇 高橋三、〇〇〇 岡本五、〇〇〇 地場强氣三、〇〇〇 先限은 海堀의肩代說이잇스나 中限同樣當限의 軟派敗戰이明白한今日 中限의戰線延長은不可能되다。◆賣方 地場弱氣側熊、東京側海堀戻待 ◆買方 田中眞 高橋 地場强氣側株式

拂下與否注目

政府態度何如

日本內地나 朝鮮地方을不問하고 在米가[illegible]로 枯渇되어渡米蒐集의困難은 勿論前途供給의不安도 업지안한모양이다 此에對한政府의 態度는果何如할지 一考를要할必要가잇는바 實로政府는非常時인만큼 적어도六百萬石의 保管米를가저야할 境遇에 處在하엿스니 結局拂下할數量은 二百五十萬石밧게 아니되는데 此를 拂下할지 안흘지 一般의 注目을끄는터인데 民間의在米事情으로보아서는 적어도二三百萬石의 大量拂下를 行하지안코는 需給의不安을緩和케하기가 困難한즉 如干四五十萬石拂下로는 問題가 되지안흘 모양이나 그럼으로政府의 拂下는早晩間에 實行될것을 豫期하면서도 市勢가容易히低落하지못함을보면 拂下를斷行한다할지라도一時的餘勢을受할뿐으로 結局은反騰되지안흘가한다 果如何?

고 從하야 渡米의 蒐集이 容易치못함으로 賣方針을 取하기는 하나 昨今과如히 天氣의 好順을 豫期하는때는 持米側의 態度가 一變하야 賣하지라도 亦未知이라함 高價賣는 警戒自重하는 모양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先限 ▲賣方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硬化 適品薄인데다가 定期高에伴하야 氣配硬化하야 取引閑散이나마 丸仁二等二十二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二十一圓八十錢

仁川上伸 期高不合으로日本內地의買氣가 金利不振이오閑散狀이나마 産地品薄과期米當限高로 底意頗强하야 氣配稍十錢高인 丸仁三等卅二圓卄錢 四等卅圓丁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釜山昂騰 市場出廻二千叺內外로 定期高를入하야 賣方態度가更히强化이나 小口必需外는 買繼躊躇하야 意外로氣薄의 氣配十錢高이며 取引高四六二叺 角フ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大邱保合 九年産米의枯渇로 渡米調達難後想의 思惑所持側의態度가 稍히强하야 强調이나마 取引閑散裡에 氣配保合인 角フ三等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入錢

群山小弱 地方出廻三千叺、定期强調로 産地品薄顯著와相俟하야 賣方이 容易히 賣치안는 一方買行不振으로 新規買가 躊躇되고 氣配十錢低인 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奔騰 適品涸渇로 商談不振이오 淸算硬化와 共히人氣는 端境面에裏情을 不敢하야 갑만三十錢奔騰인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七十錢 雄町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不動 正租의暴騰으로 産地의買腰가 逐日强硬하나 取引不振으로保合인 丸ナ龜尾三等卅九圓八十錢 四等卄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錢

金融 (八日)

◆海外經濟◆ [illegible]
◆新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米穀 (八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八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지카다비期變◆ [illegible]
◆醬油沖價◆ [illegible]
◆鑛搾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八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鮮定代引日步◆ [illegible]

米 (八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商品 (八日)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